

기초연구 2004-01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연구기관명 : 광명시 평생학습원

책임연구원 : (성공회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이병곤(광명시 평생학습원장)

조용식(광명시 평생학습원 정책기획팀)

김해보(서울문화재단 문화네트워크)

강찬호(지역품앗이 광명그루 사무국장)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지역통화 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것이다. 지역통화는 기존 화폐의 비인간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시스템에서 나온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이다. 선진국에서 먼저 시도된 지역통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협소해지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모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지역통화 시스템과 문화예술과 결합시켜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여러 연구와 선례를 통하여 지역통화가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 능력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상호부정신을 지켜가는 데 매우 귀중한 이념적 건강성을 갖고 있음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 특히 문화 예술, 교육, 건강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실행의 주체로 경기문화재단을 상정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과제이다.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의 지향점이 지역통화의 근원적인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문화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 지역통화 시스템과의 창조적 결합 방식을 제안하는 데에까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단과 지역통화 체제와의 결합은 문화예술 거래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키워낼 뿐만 아니라 시민 사이의 자율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내 문화적 자원의 공공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문화재단의 임무를 지역통화 방식을 통해 공고히 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 민주주의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게 되며, 마침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된다.

이처럼 문화통화를 이용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문화재

단이 도내 31개 시를 대상으로 문화통화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지원 센터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통화에 대한 각 시군의 인식이 많지 않고 지역통화 사업이 그다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통화 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능한 기초단체부터 단계적으로 문화통화를 정착시켜나갈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광명시를 한 예로 들어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지역통화를 문화복지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지역문화통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매우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지역통화의 일반적 원리와 동향	4
1. 왜 지역통화인가?	4
2. 지역통화의 개념과 의의	6
3. 지역통화의 유래와 종류	10
4. 지역통화의 의의	14
5. 지역통화의 추세와 전망	18
III.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있어 지역통화의 적용가능성	20
1. 경기문화재단의 목표와 성과 및 사업방향	20
2. 문예진흥과 지역통화	27
3. 지역통화와 문화생태계의 육성	31
IV.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제휴	36
1.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한계극복 해결책	36
2. 지자체 문화재단의 독창적 실험으로서의 가능성	69
3. 제휴의 기대효과	71
4. 문화통화의 개념설정	73
5. 문화통화 활성화의 방향 설정	80

6 문화통화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81
7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	90
V. 지역에서 문화통화 운영과 활용방안	101
1 지역 문화통화 운영	101
2 지역문화자원 네트워크와 지역통화적용	111
3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정책지원 필요성과 연계방안	117
4 지역 문화복지 정책의 의미와 지역통화 활용	121
5 지역통화추진사례를 통해 본 지역통화체계구성 및 문화재단 연계방안	123
VI. 결 론	134
참고문헌	136

표 목 차

<표 1> 지역통화의 거래 방식	7
<표 2> 지역통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39
<표 3> 지역통화 참여자들의 가입동기	40
<표 4> 지역통화 참가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약 - 외국 사례	41
<표 5> 재화와 서비스 거래의 유형 구분	43
<표 6> 지역통화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45
<표 7> 지역통화 주요 거래 품목에 대한 연구 결과 요약	47
<표 8> 한발레츠의 100% 지역통화(두루) 거래의 유형별 구성(2002년)	49
<표 9> 한발레츠 상위 그룹 회원의 거래 비율	51
<표 10> 주요 국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규모 비교(2000년 기준)	58
<표 1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62
<표 12>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설문 결과(호주, 1982)	63
<표 13> 참여정부 문화 정책 5대 기본 방향 및 24대 세부 추진과제(부분)	65
<표 14>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전략 비교	66
<표 15>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71
<표 16> 문화통화의 개념 요약	77
<표 17> 단위 거래 시스템의 가능한 유형성	79
<표 18> 마이클 린턴의 Registry를 통한 멀티레츠 시스템	84
<표 19> 마이클 린턴이 제안한 레츠 조직의 구성 요소	91
<표 20>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92

그림 목차

<그림 1> 경기문화재단 설립의 의의	21
<그림 2> 경기문화재단의 단계별 사업과 성과	22
<그림 3> 경기문화재단의 향후 사업 방향	23
<그림 4> 경기문화재단의 세부 사업 방향	24
<그림 5> 문화 생태계의 조성	32
<그림 6>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35
<그림 7>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한 광역 거래	76
<그림 8> 특정 기초지역 문화통화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112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역통화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지역통화는 이자와 축재의 대상이라는 기존 화폐의 비인간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으로서 특정 지역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래 체계이다. 지역통화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동료애를 증진시켜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오던 정주민 의식 부족을 제거하는 것이 지역통화의 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통화는 신뢰 회복에 바탕을 둔 사회안전망 형성을 지향한다. 복지제도가 매우 발달한 선진국조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우리나라의 지역통화는 미흡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면서도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보살피는 마인드를 고양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통화 시스템의 일반적 특성을 각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에 맞게 토착화시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각도로 시도되었다. 특히 지역통화는 여러 분야에서 그 기능에 맞게끔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통화의 원리가 어떻게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지역통화에 관한 국내외 참고서적, 관련논문 및 통계 자료 등을 정리 분석하는 사례 분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통화 실시지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특히, 광명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실천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총 VI장으로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지역통화의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보았고, III장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분석하고 있는 재단의 현재적 위치를 가늠해 보면서 지역통화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모색해 보았다. IV장은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지역통화 방식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통화에 대한 개념 설정을 비롯하여, 활성화 방안과 쟁점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향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내의 문화통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센터로서의 위상을 가늠해보았다. V장에서는 특정 지역, 특히 광명시와 같은 중소도시형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통화'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대를 점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의 문화통화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들과 지역통화를 실시하기까지의 조직구성 및 준비과정을 상술하였으며, 이미 지역 통화 조직이 완성된 도시에서 문화재단의 문화통화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지역통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특별히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준비된 조건에 따라 탄력적이며, 창조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조직 활동이다. 특히 이 시스템이 새롭게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통화 방식을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역통화 실시를 염두에 둔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고, 문화예술이라는 단일한 아이টে을 주제로 하여 실시된 지역통화 선례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문화통화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II. 지역통화의 일반적 원리와 동향

1. 왜 지역통화인가?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정한 국가나 지역마다 활성화의 정도에는 부침이 있으나 지역통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통화는 특정한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교역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통화가 어떤 배경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지역통화를 최초로 실시한 실비오 케젤은 이자가 붙는 기존의 화폐가 지닌 단점을 극복하려 했다(이즈미 루이, 2003). 특히 실업률이 높고 빈곤의 정도가 극심한 지역에서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연대감을 높여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지역통화의 기본 정신은 각기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통화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화 실시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본다.

(1) 빈부 격차의 심화 현상

한국 사회는 1990년대 말의 외환 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는 1993년까지 0.28을 약간 상회하던 것이 2001년 현재 0.32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배율(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지수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교수신문, 2003년 4월 14일자).

우리 사회 빈곤층이 1997년 외환위기(IMF) 때 전체 인구의 8.9%였던 것이 2003년 현재 12%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빈곤층의 확대는 소득분배 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정책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기조로 해왔으며,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본질적으로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는 우리 모두를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시장'에서 '명품(名品)'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財力)을 갖춘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경쟁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의 문제, 실업률의 증가 등이 지역통화가 발생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비인간적 삶의 조건을 사회적 약자들이 자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서로 돕는 정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정된 직장과 풍족한 수입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경제적 부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 살아간다. 현대 사회는 경제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의 불안감이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경제 행위의 주체인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락한 생활을 위해 돈을 모으게 된다.

대답은 분명하다. 나눔이다. 함께 사는 삶, 서로 나누는 삶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지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위한 '교육적 대안(代案)'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계보다도 오히려 경제계에서 교육에 전혀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에서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는 고급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중심의 사회발전은 그 결실이 사회구성원 모두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경제발전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선(善)'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기초한 사회발전이어야 하는데, 사회통합을 전제하지 않은 사회발전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조차도 자력으로 보장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의 조화를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 사회처럼 대외 수출의존도가 70퍼센트를 넘는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은 처음부터 '생존 논리'를 앞세운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의 상대가 되질 못한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해법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 사이에 계량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초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발전은 사회적 '선(善)'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반면, 사회통합을 위한 '나눔의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의의 실현 과정이기도 하다.

2. 지역통화의 개념과 의의

지역통화란 작게는 몇몇 사람이, 크게는 주식회사 정도의 규모로 자신들 사

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기존의 화폐와 달리 각 개인은 거래 상대자가 신뢰하는 한 얼마든지 돈을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화폐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가입자가 등록소에 계좌를 얻은 뒤 지역통화를 하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계좌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정량의 서비스를 받고 로컬 머니를 그 사람의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지역통화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인 통장형 방식이다. 이때 상대의 계좌에 들어간 만큼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 씨로부터 간단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고서 1만 그루(광명시의 화폐 단위)를 지불했다고 하자. 그러면 A의 통장에서는 -10,000그루가 빠져나가고, B의 통장에는 +10,000그루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거래를 한 두 사람은 각자의 통장에

<표 1> 지역통화의 거래 방식(통장형의 예)

(1) A씨의 통장				
거래일자	거래 내용	수입	지출	사인
04. 5. 30.	물리치료 서비스		-10,000	<i>B</i>

(2) B씨의 통장				
거래일자	거래 내용	수입	지출	사인
04. 5. 30.	물리치료 서비스	+10,000		<i>A</i>

거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로의 사인을 주고받는다. (<표1> 참조).

이렇게 해서 처음 회원이 되어 지역통화 잔액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회원들로부터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그의 계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만큼의 마이너스 잔액이 생긴다. 이와 반대로 처음 가입한 사람이 다른 회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의 계정에는 플러스 포인트가 쌓인다.

그렇다면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인 사람에게 다른 회원들은 무엇을 믿고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회원들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가능하다. 회원들 모두가 지역통화로 서비스를 주고받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등록을 했으므로 초기에는 지역통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계좌에 돈이 없어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지역통화는 기존 화폐 체계와 다를 것이 없으며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거래가 늘어감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회원들은 거래를 할 때에 특정 회원이 쌓아온 거래의 신뢰도를 참고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마이너스 잔액이 많은 사람이라도 회원간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비록 마이너스 잔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회원들끼리의 거래 내역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지역통화 시스템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난다. 한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회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공개되고, 이를 통해 그의 신뢰도가 평가된다는 것이다. 한편 모든 거래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정확한 기록과 공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특이점은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또는 마이너스 계정이라 해도,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자가 붙지 않는 돈이므로 통장에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으니 쉽게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회원간의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잔액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마이너스 계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특정한 지역통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의 총량은 등록소(또는 사무국)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 만큼이다. 그러니 누군가 플러스 계정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을 갖고서 자신의 지역을 빠져나갈 수 없다. 등록소의 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은 해당 지역에서 누군가 많은 서비스를 하거나 상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통화는 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만 이바지할 수 있을 뿐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지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통화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의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플러스 계정이든 마이너스 계정 이든 돈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는 달리 누구든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계정을 만들어서 아무리 저축해봐야 그 어떤 이윤이 생기지 않으므로 통장에 비축을 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곳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지역 안에서 회원들 간에 교역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3. 지역통화의 유래와 종류

(1) 지역통화의 유래

지역통화의 유래를 찾자면 1820년 영국의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웬의 ‘노동증명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런던의 노동자 가운데 일한 대가를 이 증명서로 받고, 이를 받아들인 개인과 상점에서 돈 대신에 유통을 시켰던 것이다. 이로부터 약 1백년 뒤인 1916년 독일 태생의 실업가이며 경제학자인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 1862-1930)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에 의한 자연적 경제질서』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민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화폐 제도의 맹점을 분석하면서, 화폐도 일반 재화처럼 시간에 따라 노화(老化)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안된 화폐 시스템이 바로 인지통화(印紙通貨: Stamp Currency)였다. 이 화폐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같은 곳에서 인지를 구입해서 달마다 첨부해야만 한다.(이즈미 루이: 2002, pp. 54-55). 만약 어떤 사람이 화폐를 취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일년간 지갑에 넣어 두었다면 대략 연리 5.2%만큼의 인지를 붙여야 유통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인지통화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유통’을 촉진하는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지역교환교육제도(LETS)

현대적 의미의 지역통화는 1983년 마이클 린튼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코목스발레 지역에 살았는데, 당시 그 지역의 실업률이 18%에까지 이르자 지역 자체의 고용능력을 높이고자 지역교환교육제도(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를 실시했다. 레츠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

은 앞의 제2절에서 설명한 거래와 유사하다.

레츠가 지닌 가장 획기적인 특징은 돈의 발행을 개인에게 위탁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지역통화는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레츠는 참가 회원 사이의 신뢰에 의해 성립된 자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여유도 생긴다. 무엇보다 부채가 있다해도 이자 때문에 애를 끊이는 일도 없으며, 회원 사이에 새로운 신뢰 관계를 쌓아감으로써 삶의 기쁨을 느끼게도 한다.

이렇게 시작된 레츠는 1985년 워싱턴에서 열린 '대안적 경제 정상 회의'에서 런던에 의해 소개가 되었고, 그 후 영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는 계기를 맞았다. 레츠는 운영 방식과 사용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지역통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레츠 시스템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된 경제 체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많은 나라에서는 방송 매체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정당들이 진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정부 당국조차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레츠가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보장 기구들 역시 실업자들에게 레츠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 화폐형 지역통화

지역통화의 다른 유형으로는 기존 화폐와 마찬가지로 손에 직접 잡히는 대안적 화폐를 인쇄하여 쓰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화폐는 미국의 소도시인 이

사카(Ithaca)시에서 폴 글로버(Paul Glover)가 만든 ‘이사카 아워’에서 기인한다. 이 지역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처럼 직접 인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물론 총 화폐량의 관리가 지역 거래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거래 내용물의 가치 측정이 거래당사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법정화폐와 차이점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전표나 수표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의 꾸리찌바, 영국의 다수 지역과 독일과 헝가리 등에서는 전표나 수표, 또는 통장을 사용해 지역화폐를 유통시키고 있다. 일례로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1971년에 자이메 레르네르가 시장으로 선출되자 당시 시의 골칫거리이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 꾸리찌바의 빈민가는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청소용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 문제를 풀고자 레르네르 시장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한 봉지 가득 넣어 오면 누구에게든지 버스표(전표) 하나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 쓰레기를 한 봉지씩 수거해오면 공책을 한 권씩 나눠주었다. 그러자 빈민가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쓰레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때 활용한 버스표는 일종의 보완화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4)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지역통화

손에 잡히는 화폐나 전표가 없이 단지 중앙 등록소에서 컴퓨터로 관리하는 +/- 계정만으로 통화를 운용하는 방식이 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에드가 칸(Edgar Cahn) 교수는 ‘타임달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시간 화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방식은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1타임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1타임달러를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사무국의 컴퓨터에 적립을 하므로,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통화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서비

스를 많이 제공한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수도 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수도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타임달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갖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매기고,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부흥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거래 방식이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 협상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무국의 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를 매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레츠 시스템과는 차별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지역통화는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3천여 개의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에 약 5~600개, 프랑스, 독일, 호주에 200여개, 뉴질랜드에 50여 개 등의 지역통화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한국 지역통화의 현황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녹색평론』에서 레츠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에는 처음으로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www.herenow.co.kr)이 '미래화폐(fm)'란 이름으로 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한 이래 미래여성클럽, 불교환경교육원, 인하대학교 내 인천정보센터, 중앙대 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기술도구은행, 관악 지역화폐 등에서 지역통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전 지역에서는 '한밭레츠'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4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단체는 특히 의료생협이 참가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작아장터, 교육관련 출판사인 '민들레'(mindle.org)의 민들레 교육통화 등이 지역통화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 송파구 자원봉

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구 동구청의 '봉사품앗이',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역통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시도되었던 지역통화운동은 약 30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각 지역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부침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정의 '한밭레츠'를 비롯한 극소수의 지역과 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지역통화의 의의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지역통화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법정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역통화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역통화가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삶에 의의를 갖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취약 계층의 삶에 도움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역통화는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교역을 이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통화가 발생한 곳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렇거니와 현재와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지역통화 확산 역시 실업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지역통화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연결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갖기 전까지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자구책을 마련해준다. 거래 자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회원들은 여러 가지 생필품과 서비스를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레츠에 연관된 사람들 가운데 평균 25% 정도가 실업자로 추정되며, 특히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지역통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레츠는 회원의 43%, 킹스턴과 서리는 50%, 하버포드웨스트는 70%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너선 크롤: 2004, p. 59.)

(2) 삶의 근원적 변화

지역통화에 가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인간적 면모를 높게 평가한다. 예전에는 집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조차 지역통화의 회원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보아준다든지, 잘 듣지 않는 음반을 서로 바꾸어 듣는다든지, 아니면 함께 산책을 해주고 통화로 지불받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두수선, 파출부, 운전자 등 일반 사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내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역통화 시스템 안에서는 매우 각별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된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회원 각자에게 대단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한다.

(3) 교육, 가장 빈번한 서비스 교환 품목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회원 가운데 가장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는 서비스 교환 품목이 바로 교육이다. 사실 지역통화를 운영하다보면 다각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사무국에서는 신입 회원의 교육과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형성되고, 신입 회원들과의 서먹함도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 사이에도 피아노 교습, 그림 공부, 외국어 교환 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지도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이밖에도 페인트칠하기, 애완견 돌보기, 전자음악 제작, 살사 춤 강습, 문서 교정, 오토바이 관리 등 교육 서비스의 목록은 특정한 재능을 가진 회원들의 참여 폭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4)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통화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좀더 가깝게 연결시킨다. 자기 마을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당 지역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러한 경제 행위 자체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일반 경제 시스템에서는 비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품을 구매하여 대형 매장에서 유통시킨다. 하지만 그만큼 생산물을 표준화되고 몰개성적인 것이기 쉽다. 그러나 지역통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수공예 제품 등이 큰 어려움 없이 팔려나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도 살리면서 중소기업과 장인들의 생계도 보장할 수 있다.

(5) 환경의 보전에 기여

지역통화는 그 자체가 친환경 요인을 갖고 있다. 물건이나 장비를 바꿔 쓰거나 빌려 쓸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가운데 가전제품을 수리할 줄 아는 기술자나, 배관공, 인테리어업자 등이 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새것과 다름없이 고쳐 쓸 수 있는 물품이 많다. 한편 지역의 생산자를 직접 통하나 지역의 상점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운송비, 연료비를 줄일 수 있고, 아울러 교통체증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 대기 오염 수준 등을 낮출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의 상류, 중류, 하류에 각각 3개의 마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세 마을은 환경보전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책임지는 구조로써 지역통화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류와 중류 지역에서 물을 깨끗하게 흘려보낸 데 대한 보답으로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통화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상류 지역의 주민들을 그것을 받아 다시 하류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들 마을은 수자원도 보호하면서 수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 공동체를 함께 가꿔가는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2003, 모리노 에이치의 글, p. 48.)

이와 함께 많은 곳에서는 지역통화가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나 유기농 농산물 단체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건강한 음식 문화에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되고, 지역통화 회원들은 건강한 음식 재료를 소비하게 됨과 동시에 땅과 물을 비롯한 농업 환경 역시 보전하게 되어 많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6) 지역의 문화 살리기

지역통화는 지역의 문화 살리기에 큰 공헌을 한다. 현대 사회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소박한 형태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던 지역의 문화 창조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럴 때에 지역통화 사무국에서는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그 마당에서 지역의 문화 활동가들이 공연과 전시를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축제에 참가하는 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지역통화로 일부 활동비용을 지불하며, 사무국에서는 이 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지역의 상점이나 생산업체들로부터 지역통화로 입장권을 사도록 유도한다. 또한 행정 당국의 협조도 이끌어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그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역통화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콘서트 통화'의 모델로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 시민, 행정 당국, 문화 관련 단체, 지역통화 사무국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이다.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데 있어 지역통화 시스템은 이러한 전략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5. 지역통화의 추세와 전망

앞 절에서 살펴 본 대로 지역통화는 지역 내의 어떠한 영역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미있는 실천이 가능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건강'이 중요한 거래 아이템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영국 워민스터 지역의 '백포드 공동체 센터'에서는 정신과 간호사, 마사지사, 침술사들이 지역통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해주었고, 이용자들은 지역통화인 '링크'로 서비스 요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 센터에서는 18개월 동안 6만 파운드(약 1억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에 상응하는 지역통화가 유통되었으며, 치료와 상담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회원들이 받았다고 한다(조너선 크롤: 2003, pp. 178-9).

이 밖에도 지역통화는 해당 지역이 떠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빈민 지역의 경우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학교 교육의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통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교는 수업료의 일부를 지역통화로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역통화 사무국을 학교 측에서 무료로 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용조합운동, 여성 문제 해결, 예술 분야나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화 체제 구축도 시도해 볼만하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작은 규모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의 정신을 손상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분야에서 특색 있는 지역통화를 구축한 뒤 이들이 함께 연계하여 지역의 좀더 커다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터레츠(inter-lets)' 시스템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조나선 크롤: 앞의 책). 이미 세계 각국의 지역통화 단체들은 지역적 연대와 함께 국제적 연계망을 구축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 하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던 지역통화 운동은 매우 빠른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인간과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된다.

Ⅲ.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있어 지역통화의 적용가능성

앞의 제2장에서 지역통화의 개념과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2003년에 발간된 '경기문화재단백서'에서 제시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역통화'의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사업의 성과, 향후 사업방향과 전망을 백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최초의 문화재단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경기문화재단의 사업과 지역통화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과 가치의 동일함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지역통화를 통한 문예진흥사업 전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경기문화재단의 목표와 성과 및 사업방향

지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후, 경기도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진행해 온 다양한 사업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전국 최초라는 위상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며, 이에 따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와의 연결지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그간의 성과와 발전적인 전망을 담은 '경기문화재단백서'(2003)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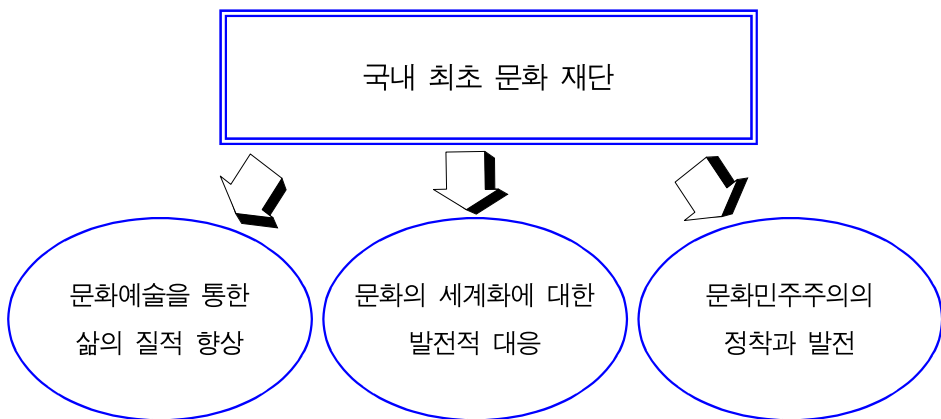
(1) 설립의의와 사업의 성과

(가)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의의

“재단의 조직적 목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있다. 문화예술 진흥이란 단순히 도민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민의 문화적 체험을 더욱 촉진함은 물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의 역동적인 문화를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참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적 생태계를 알차게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재단의 과제인 것이다.” -경기문화재단 백서 (2003) 12P.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 예술이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지역문화의 확립과 보존, 그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행정의 민간이전을 통하여 자율적 책임 운영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문화비전의 제시,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체적 동력 확보 등 ‘문화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의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림 1> 경기문화재단설립의 의의

(나) 경기 문화 예술의 진흥을 향한 발걸음-사업의 성과

재단은 시작부터 문예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원칙의 수립,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수립 등 기반을 확충하여, 전통문화의 복원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해외 문화교류와 남북 문화교류 등 대외적인 활동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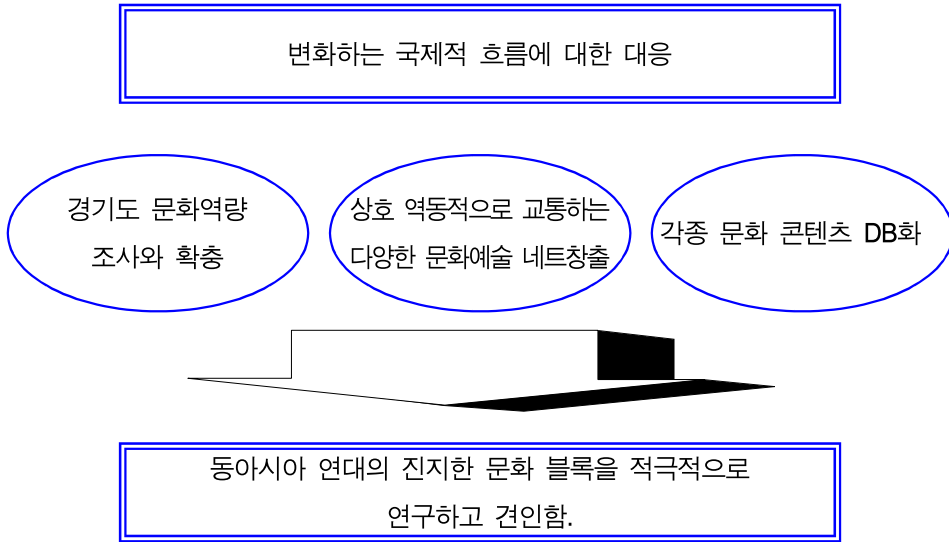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경기문화재단의 단계별 사업과 성과

(2) 재단의 사업 방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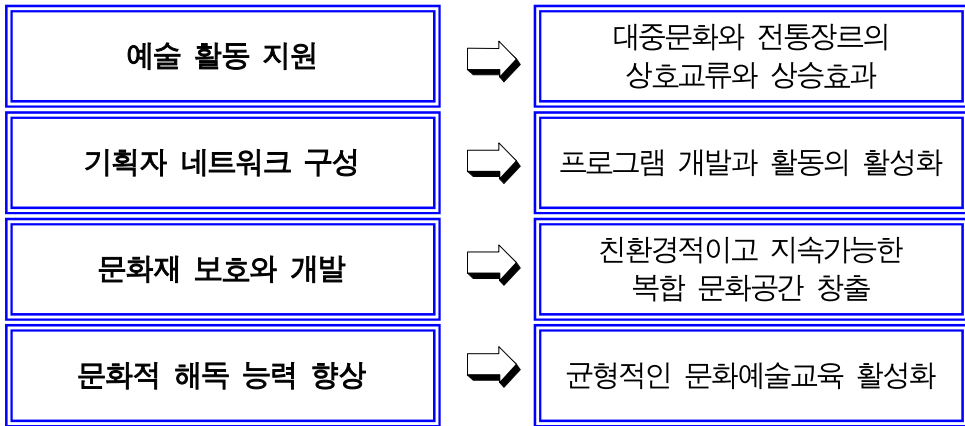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백서(2003)의 제3장 '문화환경의 변화와 경기문화재단의 새로운 전망'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문화 역량 조사와 확충, 각종 문화 콘텐츠 DB화, 상호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네트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공존하고 연대하는 동아시아 연대의 진지한 문화 블록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견인해가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평가하였다.



<그림 3> 경기문화재단의 향후 사업 방향

위와 같은 큰 흐름은 다음의 4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 ① 대중문화와 전통적인 장르의 예술 활동이 상호 교류하며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지원과 장르 융합적인 새로운 창작과 소통 양식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적극적 개발 지원.
- ② 경기도 지역권역에 있는 국민들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수용자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양성을 위한 교육구조의 마련.
- ③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정책의 마련.
- ④ 문화적 리터러시(literacy)를 매개로 하여, 지성만이 아니라 도덕덕 윤리적 능력까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함.



<그림 4> 경기 문화 재단의 세부 사업 방향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접근

경기문화재단의 창립과 발전과정과 사업방향,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면서 문에 진흥의 궁극적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가) '삶의 질 향상'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삶의 질의 개념은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통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김영종 외, 1997: 163-164; 하혜수, 1996: 82). 객관적 측면에서 삶의 질이란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라 정의되는데, 객관적·물리적 삶의 상태가 인간의 주관적·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성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내면적인 기대 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임희섭, 1996: 9). 마지막으로 통

합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복지 또는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서도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인 생활상태는 물론 내면적 심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질 개념에 관한 여러 연구경향을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은 객관적 상황조건인 객관적 요소와 인간의 질을 의미하는 주관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삶의 질이란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삶의 질 수준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요인, 생활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정구현 외, 1994: 90).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적 목표는 국민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초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최적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능력, 주민들의 애향심, 중앙정부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자치단체 간 삶의 질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최준호, 2000: 20). 통계청이 1999년도에 발간한 「시·군·구 주요통계 지표」를 보면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9년간(1990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사회·인구·문화 등 10개 분야 81가지 지표의 변화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행정적, 정치적 목표를 넘어 인간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그 사회를 구성한 모든 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며, 때로는 쟁취하고자 노력해야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생각할 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나) 문화예술 진흥의 진정한 목적-삶의 질적인 향상

어떠한 정책적인 노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서 논의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동안 도시정책은 경제성장이라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도시에 있어서 문화는 도외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화의 공유 없이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도시에 있어서 문화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도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필수 요건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문화의 재발견’ 한상연, 신영산 2000)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압도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것이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문화와 예술의 매개체적인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목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 예술 진흥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쳐 나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건강한 관점일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바탕을 두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신념 속에서 자연적이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과정을 진행하고 결과와 성과를 함께 공유해 나아갈 때,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는 사회, 삶의 질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2. 문예진흥과 지역통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폭'으로 상징되는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과 함께 그 '깊이' 즉, 철학적 뿌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유사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상적 깊이에서 일치점이 없다면 그것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많은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기준을 찾지 못하여 '용두사미'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공유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해 온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문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지역통화와 어떤 공유점이 있는지 짚어봄으로써 지역통화를 통한 문예진흥사업의 이념적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세계화에 대한 대안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문화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장단점의 비교도 가능하며,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무모한 저항이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다양성의 가치이다.

「따져보면, 하나로 통합된, 균질화된 지구촌에 대한 꿈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생명권에서 다양성은 강점이 되듯이, 인간문화에서도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은 평화롭고, 번창하며, 조화로운 발전의 진정한 기초가 된다. 만약 새로운 천년에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재앙과 사회적 붕괴를 피하려면, 우리는 지구촌을 포기하고, 세계화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중심의 경제를 껴안지 않으면 안된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 오래된 미래 12P)

자본이 주도하는 단작(單作)중심의 환금성 작물 재배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먹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취급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

국식 대중문화로 일컬어지는 대중매체와 광고 중심적인 소비적 문화의 확산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을 생각할 때, 먹거리가 생명을 이어주는 축복이듯 문화예술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유의 즐거움으로 인간에게 소중한 것임을 되새겨 본다. 수천년의 세월을 쌓아온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정체성은 그것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너무도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지역통화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작과 전개 과정에서 세계화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다국적 기업과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대 자본이 전 세계 인구 3분의 2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의 자연적 서식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맞서 지역의 정서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통화와 문예진흥은 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지녀 각기 다른 영역인 듯 보이나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통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의 배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경이나 맹목적 추종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를 수용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2) 공동체를 통한 인간관계의 회복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를 '공동체의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귀속의식(소속감, 구성원 감정, 일체감), 타인과의 유대(연대감, 정서적 연계, 상호영향의식, 지원), 공동체에 대한 평가(만족감, 충족감, 애착심), 참여의식(적극성, 자발성, 역할의식)을 포괄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공동

체에 속하여 공동운명을 지닌다는 인식 아래, 타인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이에 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로까지 이어나가려는 의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 심리학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상실된 인간유대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식을 상징할 때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점은 대다수 연구들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의도적 노력보다는, 단지 공동체의식의 정도 및 차이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어떠한 구체화된 실천의식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는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획득한 집합의식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역할의식으로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실천적 의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김형용 1999)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이러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통화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자원과 재능을 다른 이와 나누겠다는 의지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는 신뢰가 그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발생이 이러한 믿음을 한층 강화시켜 공동체의 발전을 향한 의지가 나선형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 또한 감동의 공유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나누는 과정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게 된다. 이는 물론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만이 아니라 운영되고 있던 모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유효하다. 수많은 친목 모임들이 건강한 문화예술적 체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재능과 재화를 나누는 지역통화를 실천해 간다면 지역과 국가를 진정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3) 참여민주주의로의 발전과 문화민주주의

‘문화’가 일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룩하는 업적으로서의 예술과 과학 등 문화적 결실(結實) 또는 성과(成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삼는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상태의 표현으로서의 삶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할 때, 문화가 민주주의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함은, 소질이 출중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소질을 고루 계발할 수 있는 정신 풍토를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각과 그것을 향유하는 양상은 소비 생활을 통한 향락 추구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상품을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가치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자아의 실현을 중심으로 삼는 보다 높은 삶으로의 고양을 포기한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는 소비 위주의 문화에서 인간 계발의 문화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소질이 탁월한 소수의 업적을 대중이 바라보며 찬양하는 문화 풍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관심과 의향에 머무르거나 수동적인 수용에 그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참여’가 필요하다.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은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지역통화 또한 그 특징상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일견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능력을 공유하고자 내어 놓고, 필요한 것을 다른 이와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마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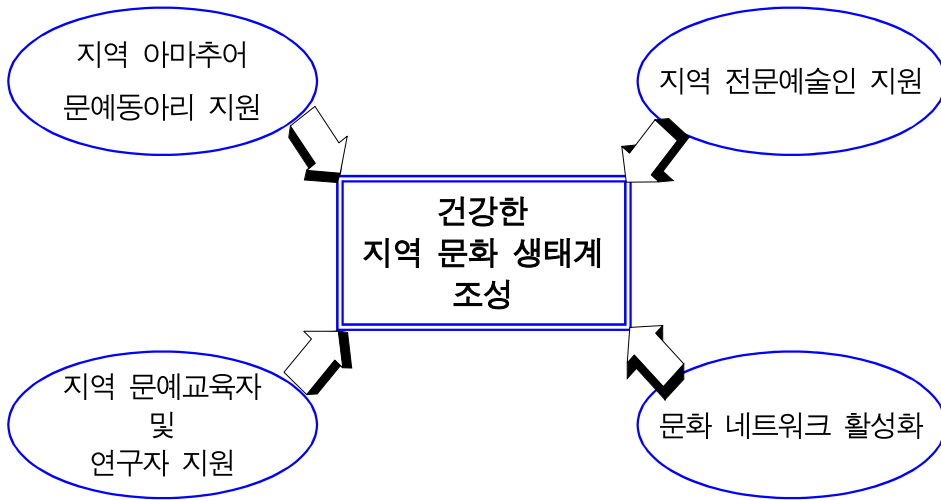
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문예진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발전과 지역통화는 이렇듯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만 그 뿌리에서부터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3. 지역통화와 문화생태계의 육성

(1)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예진흥

“ 재단의 향후 사업 목표는 ‘참다운 문화 생태계의 육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5년전, 재단을 설립할 당시 모두가 함께 토의하고 합의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의 당대적 표현이다. 그로부터 5년, 지표 조사와 인프라 구축에 몰두하고 부분적으로 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재단의 ‘문예진흥’은,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 백서(2003) 72P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사업 목표인 ‘문화생태계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지역 전문예술인 소집단 지원’, ‘지역 아마추어 문예 동아리(동호인 모임) 육성’, ‘지역 문예교육자 및 문예 연구자 지원’, ‘도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통화를 접목하여 활용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의 동일함만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적인 전략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림 5> 문화 생태계의 조성

(2) 지역통화를 도입한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는 사업에 지역통화가 적용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인가? 우선 지역통화의 특성에 따른 몇 가지 원칙과 가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지역통화는 통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룹 내에서 통용되고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지역통화는 국가가 그 교환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와 달리 사람과 사람의 거래를 표시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그룹 내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유통시키는가를 정할 때, 그 가치를 보장해 주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그 양을 그룹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00만원이든 100억이든 얼마든지 유통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통화는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남아 있다. 이는 통

장형 지역통화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데 회원들 안에서 지역통화의 함은 항상 '0'이다. 사람들의 계정에 '+'와 '-'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보다는 다른 이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을 세워본다. 첫 번째,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그룹 내에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수준, 즉 그 구성원들 내부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만큼 다양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번째, 지역통화의 입출이 문화재단이 지원한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다시 문화재단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기업이나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지역통화 총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기부를 통하여 재단으로 다시 귀속시킨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원칙과 가정 하에서 지역의 전문예술인 소집단과 아마추어 문예 동아리(동호인 모임), 문예 교육자 및 문예 연구자에게 지원금과 함께 지역통화가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원금으로 한국은행권 100만원에 지역통화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각 단체와 개인은 창작활동과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한국은행권과 지역통화를 적절히 혼용해가며 조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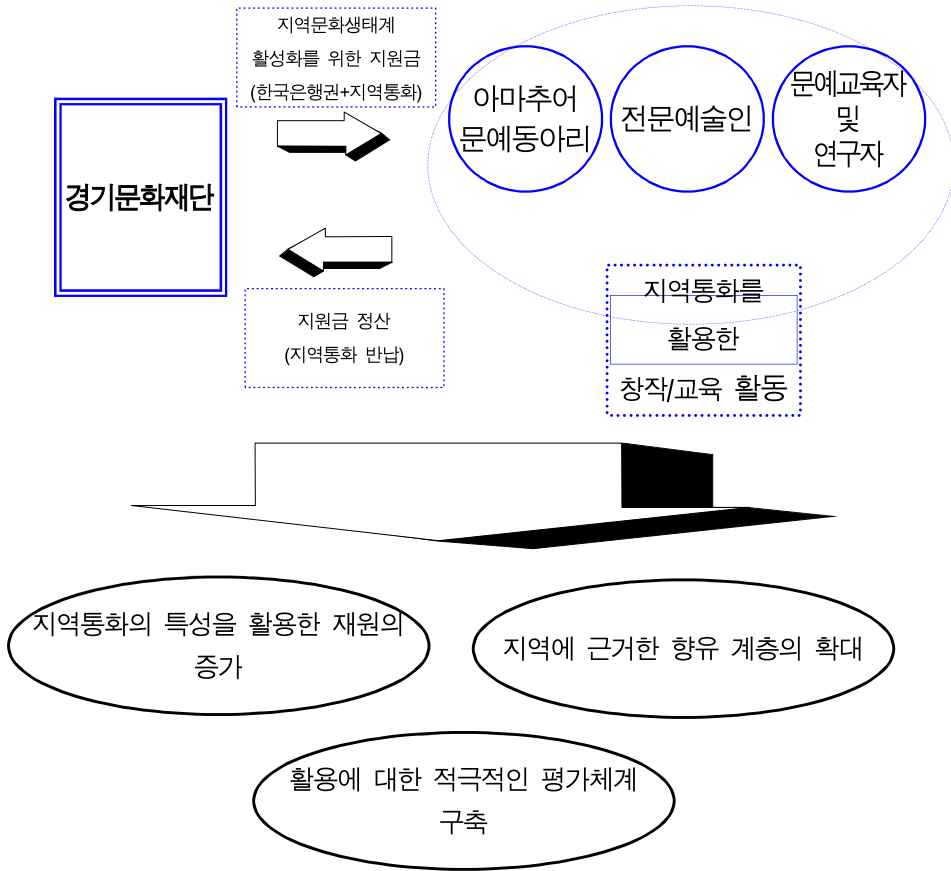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극단은 연극 공연을 위한 세트 준비와 의상, 홍보물 배포, 대관료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 지역에 지역통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통화를 받는 목공소와 양장점,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회관에 현금과 지역통화를 각각 5대5의 비율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받은 측에서도 지역 내에서 소용되는 자신이 필요한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지역통화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고, 지자체는 문화재단에 재원을 출자하는 개념으로 지역통화를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역시 극단이 공연을 시작하게 되어 입장료를 현금과 지역통화로 각각 5대5의 비율로 받게 되면 이를 취합하여 재단에 다시 돌려준다. 즉 지원금 100만원은 없어지지만 지역통화 100만원은 다시 재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역통화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지원단체는 지원금

의 배가 효과를 얻게 되어 원활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교류하여 지출하게 됨으로써 자연적인 공연 홍보 효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지역통화를 통한 할인 효과는 입장권의 단순한 할인에 그치지 않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과 공연단체 내에서 서로 관계없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입장료수입으로 들어온 지역통화는 재단으로 다시 귀속될 것이며, 그 실적은 특정 극단에 대한 다음 단계에 지원할 시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지원된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역통화를 벌어들인 공연과 극단에 대해서는 그 극단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한 바가 더욱 크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예 교육자의 경우는 재단 측으로부터, 한국은행권과 지역통화를 함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통화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재단에 다시 귀속시키어 그 활동을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의 경우 자신이 관심 있는 예술분야에 자원봉사를 해주고 받은 지역통화로 그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통화를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에 도입하면 문예진흥에 배정된 예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류에 의해서 참여를 유도하며,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아닌 공감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고 평가만을 위한 전문집단이나 문화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하는 방식보다 지역통화를 잘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좋은 작품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호응을 불러일으켜 지역통화를 많이 모은 단체가 있다면, 재단에 귀속된 지역통화의 양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평가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IV.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제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약 3000개 이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통화는 지역에 따라, 구성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립적 지역경제의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통화의 이러한 가치는 지역통화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적 거래 시스템을 통해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운동이라는 철학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지역통화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만성적인 거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문화예술계로서는 이러한 성공적 선례들을 당연히 벤치마킹하고 제후의 대상으로서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정책의 전략적 제후를 통해 문화거래를 주로 하는 지역통화, 즉 “문화통화”의 성립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최근 설립 붐이 일고 있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지역통화와 문화예술 한계극복의 해결책

문화통화, 즉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연결 가능성은 두 분야에서 각각 한계를 통감하고 있는 그 간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찾아진다.

(1) 지역통화의 한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문화통화의 가능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지역통화 단체들은 지역통화의 이념에 대한 불신, 부채에 대한 두려움, 거래의 여건 조성, 신규 회원 확보와 관리, 교역 지역이 너무 넓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 확대라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 (Jonathan Croall, 박용남 번역, 1997, LETS Acts Locally,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p83)

이런 문제들을 종합하면 결국 “거래 부진과 이에 따른 지역통화 조직 자체의 붕괴 위험성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통화가 시장 경제 이윤의 바탕이 되는 “규모의 경제”에 저항하는 좌파적인 “착취 철폐론”이나 “생물지역주의”적 견해를 따르는 운동 철학의 경직성,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성향, 자생적 상호 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조직을 지탱할 운영경비가 청구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역통화 거래의 부진으로 귀결되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들은 그것이 또다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악순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지역통화의 거래부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래 촉진 방책으로서 공공 부문의 개입을 통한 문화예술 거래의 도입, 즉 문화통화의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가) 참여자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 거래에 대한 거부감

우리나라 지역통화들의 거래 부진 현상은 지역통화 회원의 가입 동기와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초기 3년을 전후해서는 중산층의 녹색주의자나 대안론자들로 구성된, 지역통화의 철학에 동조하는 회원들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주요 지역통화 참여자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40대, 대졸자, 중상의 소득수준, 자영업을 위주로 취업자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이 61.7%로 고졸 34%보다 두 배 가량 차지하였고, 참여자들의 월 가구소득 수준은 대다수(63.5%)가 100 - 300만원 사이이지만, 300만원 이상도 27%나 차지하여 현재는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취업여부도 실업자는 극히 적었고(4.3%), 취업자가 많았다.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가입 동기도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봉사, 공동체 회복 등 커뮤니티의 철학에 대한 동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미취업 저소득자들의 가입 동기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철학적 동조가 많은 것을 보면, 회원들이 지역통화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이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지역통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 : %)

구분		N	구성비(%)
성별	남	98	46
	여	115	53
연령	20세 미만	16	7.5
	30대	63	29.6
	40대	79	37.1
	50대	43	20.2
	60세 이상	12	5.6
교육	중졸 이하	10	4.3
	고졸	71	34.0
	대졸 이상	129	61.7
가구소득	100만 미만	18	9.5
	100만 - 200만 미만	60	31.7
	200만 - 300만 미만	60	31.7
	300만 이상	51	27
취업유무	취업	138	65.7
	미취업(전업주부, 학생)	63	30.0
	실업	9	4.3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표 3> 지역통화 참여자들의 가입동기

구분		이념 및 취지	남을 도울 있어서	경제적 이유	이웃 사귀	기타
전 체		54.7	15.9	14.9	4.0	10.4
성별	남	50.5	16.1	14.0	7.5	11.8
	여	57.5	16.0	16.0	.9	9.4
연령	30대 이하	64.7	5.9	5.9	11.8	11.8
	40대	47.3	17.6	18.9	5.4	10.8
	50대 이상	43.1	29.4	9.8	3.9	13.7
학력	중졸 이하	33.3	33.3	11.1	11.1	11.1
	고졸	35.4	15.4	27.7	4.6	16.9
	대졸	66.1	14.9	8.3	3.3	7.4
소득	100만 미만	52.9	11.8	23.5	5.9	5.9
	100만-199만	47.4	14.0	22.8	7.0	8.8
	200만-299만	66.1	14.3	7.1	3.6	8.9
	300만 이상	54.2	12.5	12.5	2.1	18.8
취업여부	취업	56.6	10.9	15.5	4.7	12.4
	미취업	53.4	22.4	13.8	3.4	6.9
운영단체	미내사	73.3	5.6	13.3	1.1	6.7
	서초품앗이	37.1	25.8	11.3	8.1	17.7
	송파품앗이	51.7	24.1	10.3	6.9	6.9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	30.0	15.0	40.0	5.0	9.5

N = 213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표 4> 지역통화 참가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약 - 외국 사례

- * 레츠의 가입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 (Offe and Heinze, 1992 a study in The Netherlands; Williams, 1996a; Williams, 1996b; Williams, 1996c; Williams, 1996d; Pacione, 1997a; Pacione, 1997b; Pacione, 1998; Seyfang, 1998; Caldwell, 1999).
- * 레츠 내부에는 여성들이 핵심적인 그룹으로서 우세하다. (Croall, 1997).
- * 레츠의 가입자들은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Offe and Heinze, 1992; Pacione, 1997b).
- * 레츠는 녹색정치, 혹은 ‘대안적’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체제로 여겨진다. (Offe and Heinze, 1992; Williams, 1996a, Williams, 1996d, Pacione, 1997b; Pacione, 1998).
- * 레츠는 물질적, 문화적, 교육적 소외계층들을 끌어들이는데 부족하다. (Bowring, 1998).
- * 레츠 회원의 41%가 환경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Caldwell, 1999).
- * 초기 레츠는 중산층이 주도했다.(Croall, 1997).
- * 대학졸업장, 또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실업자들이 레츠 내부에서 “소외된 중산층”으로 과도하게 대표되었다. (Williams, 1996d; Williams, 1996e; Pacione, 1997b; Pacione, 1998).
- * 31%의 레츠 회원들이 실업자이며, 더 나아가 42%의 회원들이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Birch and Liesch, 1997 in Liesch and Birch, 1999 examining an Australian LETS).
- * 저소득층 지역에서의 레츠는 환경운동이 주도하거나, 중산층이 주도하는 체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Barnes et al, 1996).
- * 상당수의 레츠는 상대적으로 부유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Lee, 1996).
- * 레츠는 교육을 잘 받은 하위 계층이나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들 집단에게 매력을 끈다. (Lee, 1996).
- * 가장 규모가 큰 레츠는 높은 수준의 녹색 정치에 주목하는 지역에 분포한다. (Williams, 1996f).
- * 레츠의 초기에는 ‘새로운 가입자들’의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이 수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Williams, 1996d).
- * 레츠 회원의 48%는 자영업자들이거나 직장인들이며, 23%는 주로 가정주부이거나 어머니로서 ‘기타’ 직업에 속하며, 2%가 실업자로 분류된다. (Caldwell, 1999).

(출처: Jan Bebbington, 2000, LETS: An Introduction and Evaluation of the Challenges to Accounting)

이런 특성을 가지는 회원들은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운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그리고, 심리적이든, 실제적이든 부채로 인식되는 (-) 계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현금 구매 선호 등이 원인이 되어 자신들의 계좌를 (+) 상태로 하여 지역통화를 쌓아두려고 하는 또 다른 통화 축재의 경향을 띠게 만든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큰 (-) 계정도 문제이지만,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 계정도 상호 교환 거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통화의 본래 철학에 어긋나며 시스템의 지속성을 매우 강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성원의 성격에 맞는 거래를 개발하여 인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높은 교육 수준과 문화 운동가 기질을 가진 우리나라의 지역통화 구성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문화예술의 향수 또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거래 품목은 지역통화 거래의 부진을 타계할 주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통화를 문화와 결합하여 문화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우선, 문화 향수를 위해 자신의 계정에 누적된 (+) 지역통화를 지출하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의 회원들에게 매력적인 소비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형태의 선의의 서비스 제공으로 쌓은 (+) 계정을 상품 구매 보다는 정신적 소비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굳이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될 상호부조를 거래화한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비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태도와도 일치하는 점이 많아서 거래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시행, 웰빙 트렌드 등과 맞물려, 중산층 가정에서 문화 지출을 늘이고자 하는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 지출의 저항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절대 가치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의 교환 가치로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¹⁾. 이런 상황에서 지역통화는 문화 지출의 저항 문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문화 거래 품목의 확대는 지역통화의 거래를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나) 거래 품목의 제한성에서 오는 거래 부진

태동기를 갓 넘긴 대부분의 지역통화 단체들은 거래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회원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래 시스템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래 품목의 제한적 상황은 다시 거래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통화의 주요 거래 품목은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 근원적으로 제한되는 경향도 있다.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들은 아래 <표4>과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재화와 서비스 거래의 유형 구분

	시장거래	비시장거래
재화	유형 I	유형 III
서비스	유형 II	유형 IV

지역통화를 하나의 ‘운동’으로 파악할 때, 그 운동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위의 네 가지 유형의 거래 중에서 어떤 것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캐나다에서 LETS를 시작한 마이클 린튼의 경우는 지역의 장기적

1)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바로 이런 품목이 지역통화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에서 상품화에 실패한 회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유형Ⅳ의 거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반면 많은 지역통화가 추구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환경 운동적 측면에서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유형Ⅲ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물품의 재활용이나 물물교환이 바로 그러한 거래 유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통화의 활성화, 또는 지역통화를 통한 문화 거래의 활성화라는 명제 하에서는 각 유형의 선호를 떠나 모든 유형에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앞으로 주요 거래 품목을 달리하는 개별 지역통화간(Inter-LETS) 거래의 촉매 상품으로서 문화예술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시장/비시장, 재화/서비스 유형의 거래들이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지역통화들의 주요 거래 품목을 살펴보면, 보육, 개인 교습 등의 서비스가 주 거래 품목이며 지역통화도가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고려한 대안적 거래 시스템으로서의 제 구실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품목 보다는 호혜적 서비스의 제공 차원에서 자신이 제공할 품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보면,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원들은 지역통화의 철학에는 동의하되 그 실제 거래 기능에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지역통화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구입희망(N=70)	품목	제공가능 (N=121)
구성비(%)		구성비(%)
41.4	교육 및 교습서비스	32.2
20.0	전문서비스	12.4
20.0	가사서비스	11.6
14.3	단순노동서비스	19.8
12.9	주택 수리 서비스	9.1
12.9	식품	3.3
12.9	생활용품	4.1
8.6	의복	5.8
7.1	의료서비스	7.4
10.0	기타	15.7
160.0	계	121.5

인터뷰 사례로 보면 “여기에 등록된 품목 중 어느 정도는 현금이 있어도, 돈으로 사기에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히 누가 요즘에 남이 쓰던 옷가지를 사서 입겠어요. 그리고 뭐 도자기 강좌라던가, 정신 수련 같은 것을 누가 돈 내고 듣겠어요? 그나마 좀 현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100%fm보다는 10%, 20%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정도는 fm이 아니더라도 좀 싸게 살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통화라는 것은 그냥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그 정도에서만 가치가 있는 품목들이죠.” (사례 5. 미내사, 남, 40대)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이것은 소비재와 단순노동력 구입 가격이 높아 재활용품의 사용이 빈번하고 물물 교환 문화에 익숙한 서구와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품앗이나 두레 등의 전통적인 공동체 상호 부조 문화가 현대에까지 전승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필요성이 덜해진 후대에 와서야 그 정신적 덕목을 특히 강조하여 전승하려 하였으

나, 사실 전통적인 두레나 품앗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정서적 차원의 목적보다는 명확한 상호 노동교환의 경제적 거래 형태로서 생활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품목 중 자녀의 과외 등 개인 교습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회원들이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절대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위해 기꺼이 현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품목의 경제적 교환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품목을 지역통화의 주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웰빙”이 사회적, 경제적 코드가 되고 있는 현상이나, 주 5일 근무제 실시,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조만간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가 바로 그러한 품목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 비해 문화운동 차원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좀더 현실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사례가 많은 영국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로 현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이것은 재활용품의 물물교환에 익숙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지역통화 거래가 실질적인 대안 경제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사례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7> 지역통화 주요 거래 품목에 대한 연구 결과 요약 (외국사례)

- *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 물품 (식료품, 의류 등) 38%, 교역(가전품 등) 29%, 기타 (대체 치료술 등) 22%. (Caldwell, 1999)
- *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69%, 물품 43%, 개인 교습 24%. (Williams, 1996c)
- *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농촌 지역): 식료품 40%, 의류 34%, 수선 및 관리 31%. (Williams, 1996d)
- *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 순서: 음식, 의류, 수선 및 관리 (Williams, 1996e; Williams, 1996f).
- * 사치품들을 아주 낮은 비율로 구매됨 (Williams, 1996d), 기술이나 훈련의 구매는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함. (Williams, 1996e)
- * 가장 많이 제공하는 물품: 대체 건강 치료법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O'Doherty 등, 1999)
- * 한정된 영역의 물품과 서비스를 싼값으로 내놓기는 하지만 실업자들이 좀더 자주 판매품을 내놓음. (Williams, 1996c)
- *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값나가는 물품을 구매함. (Douthwaite, 1996).
- * 간단한 도우미 작업, 돌보기, 특별한 과업: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개인 교습이 많이 제공되며, 물품의 제공은 드뭄. (Offe and Heinze, 1992).
- * 여성들은 기능적이고, 간단하면서 어렵지 않은 집안일에 대해 도움 받기를 원하며, 남성들은 가사, 돌보기 서비스를 원함. 한편 남성들은 '전형적인 남성'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들을 제공함. (Offe and Heinze, 1992).
- * 큰 규모의 레츠에서는 더욱 많은 기술과 능력의 풀을 갖고 있으며, 더욱 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Offe and Heinze, 1992; Williams, 1996f).
- * 신규 레츠는 기초적인 서비스 품목이 부족하기 하나, 유기농 농산물이 레츠 조직을 활성화 함.(Wilding, 1991).
- * 유기농 과일, 채소, 비료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음. (Glover, 1999).
- * 기초 생활 물품과 서비스가 곧바로 제공됨. (Seyfang, 1998; Stott and Hodges, 1996)
- * 농촌 지역 레츠에서는 거래 물품의 25 %가 식료품이며, 19%가 정원 손질에 필요한 것임. (Pacione, 1997a). 지역에서의 투입에 있어 유기농(노동과 거름)에 대한 의존이 생산품의 교역을 촉진함. (Pacione, 1997a)
- * 식료품은 적은 양만 이용 가능하며(Seyfang, 1997), 많은 양의 제공은 불가능함. (O'Doherty et al, 1999).
- * 실업자들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만큼 충분한 물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는 레츠는 거의 없음. (Williams, 1996c).

(Jan Bebbington, 2000, LETS: An Introduction and Evaluation of the Challenges to Accounting)

거래 품목의 제한성에 대한 고찰을 통한 지역통화 거래의 활성화의 열쇠는 국내 사례를 통해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화가 지닌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숙련노동이 제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하면서 아울러 전문적 노동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노동력의 소유자라면 굳이 지역통화에 참가할 경제적 유인요소가 적을 것이다. 반면,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지역통화 내에서의 수요는 크기 때문에, 항상 공급부족의 문제가 일반 시장 거래에서 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의 노동력 제공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만 위의 <표 4-5>에서 제공 가능한 품목에 전문적 서비스가 많은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실제 성사된 거래들의 성격 비율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통화 중 하나인 한발레츠의 경우 2002년도의 거래규모가 2001년도에 비해 세 배 가량이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한발레츠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의료생협이 한발레츠의 열성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7>에서 한발레츠의 의료생협을 통한 거래를 앞의 <표 4-1>의 분류에 따라 유형 II 거래로 카운트한 총 거래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 지역 공동체 의식의 부활 또는 환경운동 측면의 운동으로 시작한 지역통화, 즉 유형 III, IV의 거래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의 활성화가 유형 II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회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통화와 실물 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 유형의 창출이라고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8> 한발레츠의 100% 지역통화(두루) 거래의 유형별 구성(2002년)

	시장거래	비시장거래
재화	<유형 I > 782,750두루/24건 (5.9%)	<유형 III> 2,682,080두루/208건 (20.1%)
	<유형 II > 6,487,800두루/597건 (48.6%)	<유형 IV> 3,394,200두루/113건 (25.4%)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통화가 완전한 자급자족형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한, 비시장 거래 유형의 거래만으로 지역통화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지역통화를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특히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보완적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시장의 실패 품목이었던 문화예술도 새로운 지역통화의 거래 품목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와 한발레츠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지역통화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래 품목이 필요하며, 회원들의 구매 요구가 큰 특정 품목의 인위적인 추가가 바로 지역통화 전체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활성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각 지역통화 커뮤니티들의 당면과제이다. 우리는 향후 문화예술 거래 품목의 추가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이러한 논의는 앞절에서 리체 참가자들의 성격 분석 결과와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근거로 한다.

(다) 거래의 폐쇄화 : 지역통화의 거래 광역화 품목 개발의 필요성

많은 지역통화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폐쇄화 현상 역시 지역통화가 추구하는 철학에서 기인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다. 지역통화들을 크게 공동체 회복 중시형과 경제효과 중시형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나라의 사례에서는 대체로 후자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급되고 있으며 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를 중요한 목표로 삼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 이상의 회원수 및 거래규모가 확보되어야 지역통화의 적극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통화에 있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거래를 양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본적으로 대면 접촉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역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심리적 거래 문턱, 또는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또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지역통화의 경우, 거래의 광역화는 결국 경제적 이윤을 위해 생태학적으로 매우 불필요하고 환경 파괴의 결과를 수반하는 상품과 자원의 원거리 이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또 자본에 의한 부의 지역 외 유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거래의 광역화를 지양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한발레츠의 사례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내적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가 소수의 열성적인 참여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그들 사이에서만 닫힌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지역통화의 문제점인 거래의 폐쇄화 경향이다. 즉, 단순히 회원수의 양적 증대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 간의 거래관계 네트워크를 더욱 조밀하게 만드는 것도 거래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표 9> 한발레츠 상위 그룹 회원의 거래 비율

년도	상위 그룹	거래회수 (A)	지역통화 전체 거래회수 (B)	A/B	상위그룹 내부거래 (C)	상위그룹 외부와의 거래 (D)	C/(C+D)
2000	15인	132건	287건	46.0%	76	56	57.6%
2001	17인	362건	553건	65.5%	162	200	44.8%
2002	19인	1,140건	1,486건	76.7%	406	734	35.6%

(류동민, 지역통화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통화 거래의 대내외적 폐쇄화는 전체 시스템의 거래 부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동조와 대면적 접촉을 통한 심리적 거래 비용이 낮은 상태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품목 보다는, 커뮤니티의 기본 철학을 훼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립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수월한” 거래 품목의 도입을 통한 거래 촉진책이 필요하다. 그 수월한 거래 품목이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도, 지역통화의 철학에 위배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이고, 부의 지역 외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품목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지역통화는 경제효과보다는 대안적 문화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회원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이 바로 그 “수월한 거래 품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발레츠의 의료생협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통화와 실물경제의 결합, 둘이상의 지역통화의 결합(이른바 Inter-LETS)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통화 담당자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유력한 발전 방향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이 경우 각 시스템 간의 거래에서 소위 “환전”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환전 기능을 담당할 매개 기관이나,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지역통화 시스템들이 공통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래 품목이 있다면 거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2)

2) 앞서 소개한대로 영국에서는 Inter-LETS 거래를 지향하여 LETS Link 형태의 협의체

다시 지역통화 참여자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각 시스템에서 공히 중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이 바로 가장 적절한 “환전성을 가진 광역 거래 품목”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³⁾이 각각의 지역통화 시스템을 중계하는, 소위 “광역 거래를 위한 은행”, 즉 지역통화 입장에서는 “광역거래 등록소”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통화의 거래 활성화에 더 없이 좋은 촉진제가 될 것이다.

(라) 지역통화 거래를 위한 비용 충당의 문제

지역통화의 운영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간사의 인건비 등과 관련된 재정 문제이다. 돈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 돈이 필요하다는 역설은 이 사회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일 것이다. (박용남, 2003,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 p219).

대부분의 지역통화 커뮤니티에서는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정의 거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상호부조와 거래 수단의 사용에 대한 비용, 즉 법정통화의 이자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 위에서 출발한 지역통화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신규 회원 유치 시 오해를 낳고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면,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시스템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나마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액의 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한발레츠의 경우 현재보다 약 30~40배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등록소 운영이 가능한 실정으로

가 활동 중이다. 마이클 린턴은 Registry 시스템을 통한 수월한 Multi-LETS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지자체 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박용남, 2003,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 그 대책으로서 회원들에게 월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⁴⁾

지역통화가 상호 부조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이나 자발적인 빈곤 구제의 사회 복지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거나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정부 공공 재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통화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레츠의 25% 정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onathan Croall, 박용남 번역, 1997, LETS Acts Locally,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p155) 또한 1996년에는 전국적인 기구인 <지방정부 레츠 정보 교환소>가 결성되었고, 많은 지방 의회에서 레츠에 대해 홍보 활동 원조, 회의장 대여 등 간접적인 지원에서부터 레츠 설립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의회가 직접 레츠에 가입하여 레츠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⁵⁾ 영국에서 최초로 레츠에 가입한 칼더데일 지방의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레츠 회원으로 참여하여 복사, 우편, 인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5천 파운드에 달하는 플러스 (+) 계정을 쌓았고, 이를 자선단체에 보조금으로 제공했다.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에서 레츠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직접 특별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공적 지원에 대해 레츠의 자율성 침해와 운영 철학의 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마이클 린턴은 정부가 레츠를 “연구하고”, “알리고”, “협조하고”, “참여하고”, “인프라 구축을

4) 이것은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것과 같다.

5) 영국의 프롬 군의회, 엑스마우스 의회 등이 레츠에 가입했다. 반면 더비 레츠, 스코틀랜드의 니트데일 레츠 등은 의회의 회원 가입에 반대하였다. 7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맨체스터 레츠는 시의회의 1만파운드 지원 제의를 놓고 회원간 격론 끝에 제안을 거절했다. (Jonathan Croall, 박용남 번역, 1997, LETS Acts Locally,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p156~157)

6) 영국의 경우 하운스로우, 브래드포드, 그리니치, 레디치, 세프웨이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했고, 리버풀 의회는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3명으로 구성된 “레츠 개발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p158)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방관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레츠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시스템이나 규모의 우위를 이용하여 레츠 시스템을 장악"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Linton, Michael, 1994, The LETSystem Design Manual, Landsman Community Services Ltd.) 또한, 정부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통화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 스스로가 자기 철학을 거스르는 딜레마 빠져 고민하기 보다는, 지역통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Win-Win 하는 실용적인 제휴를 추구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⁸⁾

물론 이러한 제휴에 대해 지역통화 입장에서는 철학의 고수와 실용적 효과 사이에서 시스템 자체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벤치마킹하는 문화예술의 입장에서는 망설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문화예술이라는 품목의 추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통화의 거래 촉진 품목이 될 수 있음이 확실하지만, 현재 문화예술 자체의 거래가 부진한 상태를 고려해본다면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거래만으로서 문화통화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문화통화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 소위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재원의 투입 정

7) 한발레츠의 박용남은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2003, 이후, p210)에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통화운동의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외부의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레츠는 6%에 불과하다. (같은 책, p156)

8) 지방정부가 레츠를 지원하고 나서는 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고압적인 자세로 상명하달 식으로 지역사회에 레츠를 이식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해 지원할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레츠는 본질적으로 개별 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시스템이며, 이러한 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규제되어야 한다. (Jonathan Croall, 박용남 번역, 1997, LETS Acts Locally,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p201)

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 재원으로 대규모의 문화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행정 주체, 또는 문화재단들이 본연의 사업의 일부를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예산에 별도로 추가적인 지출 없이도 문화통화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문화재단이나 지자체가 지역통화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문화통화가 문화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소외층과 문화예술 창작 집단에 대한 문화 복지 제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적 문화민주주의 욕구 충족 등의 본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갖가지 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문화예술분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망설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역통화가 문화예술부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뒷 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통화는 문화예술과 손잡음으로써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Win-Win 제휴 전략 차원에서 문화예술부문의 공공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철학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

(2)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문화통화의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 지역통화의 활성화의 방편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면, 반대로 지역통화가 문화예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 절에서는 침체된 커뮤니티의 거래 활성화와 인간 중심의 공동체 회복 효과가 있는 지역통화가 문화예술 정책 과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 지역통화 도입 시점과 유사한 문화예술계 거래 부진과 빈곤

최초 지역통화가 도입된 시점의 지역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 및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사실 문화예술계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우선, 문화예술의 주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예술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 실질적인 실업 상태이며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반면, 소비자들 또한 항상 충족되지 않는 문화예술 구매 욕구로 인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 같은 문화예술계를 하나의 닫힌 경제 커뮤니티로 본다면, 구매의지는 있지만 통화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잠재 소비자와 노동의지(창작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가 만들어 내는, 악 순환적인 장기 경기 침체 국면과 같다.

이런 현상은 문화예술이 노동집약적이어서 경영관리에 의한 생산 효율의 제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자측이 소비자측이 인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책정하는 가격 결정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시장 실패의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측 모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이 오랫동안 문화예술 정책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문화거래의 부진, 즉 시장의 실패 현상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거래의 심리적 비용을 높인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모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처럼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서도 문화 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것을 고려해 보면, 문화예술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단순히 육하원칙에 입각한 상품의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예술 상품의 본질적 가치, 즉 창작자의 의도의 전달, 감상과 비평에 의해 발현되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정보, 즉, 주관적인 정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상품의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타계하는 방법은 시장에서의

9) 특히 주관적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제공으로 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상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방법과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교환 거래와 대면 접촉을 활성화하는 지역통화는 기존의 일방적인 문화거래 방식보다 문화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 증대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통화의 문화거래 등록 행위는 지역 내 문화 정보의 간접 제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통화거래는 직간접적으로 주관적인 정보 비대칭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 현금 보조의 효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심리적 거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문화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통화를 활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연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가 많아질 경우 시장경제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격¹⁰⁾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예술 창조자들의 실업과 빈곤 상태를 타파할 수 있다. 즉 사회 복지 분야에서 보여준 성공 사례처럼 지역통화가 문화예술 분야의 실업자 구제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 자원의 동원과 분배 : 문화생태계 육성과 네트워크가 중요

시장 경제의 실패 품목일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이라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증진은 결국 많은 부분 공적 자원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산의 정부 예산 1% 확보는 국가의 문화 진흥에 관한 상징적인 목표로서 널리 확산되었지만 아직 이를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박응격, 2000, 문화예산의 확충과 효과적 활용 방안) 그리

10) 물론 굳이 현금만으로 가격을 매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 국민 1인당 정부 예산 지출 비율을 비교하면 1% 문화예산이 달성된 2000년에도 1인당 정부 문화예산이 약 15달러로서 영국의 29달러, 캐나다의 71달러, 프랑스의 46달러(1995년 기준)로 소위 문화 선진국의 공적 자원 투입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문화 자원의 공급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주요 국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규모 비교(2000년 기준)¹¹⁾

국가	정부 총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 (%)	1인당 문화예산 (US달러)
미국 ¹²⁾	0.011	0.002	0.662
프랑스	0.910	0.177	46.84
영국	0.407	0.148	28.12
독일		0.024	6.29
캐나다	1.894	0.37	70.74
한국	0.508	0.074	7.55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 기능에 대한 재정을 배분할 때에는 넓게는 문화예술분야와 다른 부문간(특히 사회복지 부문과)에 제로섬(Zero-Sum)적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오승석, 문화예술 재정의 확충과 배분) 즉, 어느 한쪽의 증가는 다른 한쪽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 결과,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 부문의 급격한 예산 증가를 가져오기란 불가능하다고 예산 점

-
- 11) 지방자치가 정착된 외국은 문화정책이 지방 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주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응격, 2000,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 활용 방안,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25)
- 12)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없으며 단지 국립예술기금(NEA)를 중심을 단편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응격, 2000,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 활용 방안,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25)

증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 확보된 문화 자원의 배분 정책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항상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의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액다건 지원이 옳은가, 다액소건 지원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 마케팅 지원 등의 간접적, 전략적 문화예술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적된 재원의 퍼주기식 일회성 지원보다는 각각의 활동 주체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며 자생적 생산력과 소비력을 키워나가도록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문화예술 진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하부 문화소비 구조를 토대로, 상부 문화 생산자의 활동 여건이 성립될 수 있는 다층적이고 건강한 문화 생산 및 소비 구조가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된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이 다양한 기부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최근 사례들이 시사하듯이, 이제 공익성 재원의 조성에 있어서도 고갈되고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재원의 샘” 보다는 “문화자원들의 네트워크의 중심”(Hub of Network)으로써 가용 재원의 연결을 통한 보다 폭넓은 재원의 조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가 곧 자원인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 내, 지역간의 문화예술협동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문화예술의 지역적 불균등구조를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강조된다.(임상오, 공연예술시장의 특성과 공연예술정책의 과제)

지역통화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는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 자원들을 네트워킹하거나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무한정 창출해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효율 창출 과정이 바로 시스템의 특성상 회원들 사이의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문화예술 정책의 가장 근원적이고 오래된 과제였던 문화예술 진흥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지역통화가 제안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람과 예술 교육 등의 문화예술 거래를 주로 한 지역통화, 즉 문화통화는 문화예술의 소비자와 창조자들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다층적이고 튼튼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적 공동체 구축을 통해 공고한 문화네트워크를 이루어 내기 때문이다.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튼튼한 문화생태계 육성은 문화예술 시장의 자생적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초 작업일 뿐만 아니라, 영리 부문의 자원 유입을 통한 전체 문화 자원의 확대와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고객 마케팅, 문화 마케팅 등이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취향과 성격이 잘 정의된 구성원들로 연결된 문화네트워크는 전략적 문화제휴를 통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될 수도 있다.¹³⁾ 앞 절에서 제시한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그 논거로 들 수 있다.¹⁴⁾

(다) 문화예술의 공공 가치에 대한 재고 : 공적 자원 배분의 당위성 확보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논거는 일찍부터 재정학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서비스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소비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positive existence value), 유증가치(Positive bequest value), 위광가치 (positive prestige

13) 예술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는 기존의 기업경영 요소에 있다. 처음부터 유통측면에서 소비자까지 경영요소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객을 발생시키는 예술의 기본요소로써 창작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고객 지향의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경영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기업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예술경영의 비전문성을 보완하려던 접근 방식에서 오히려 예술경영이 기존의 기업 경영보다 한발 앞선 기법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 문화통화의 회원으로서 기업의 참여는 환영되지만, 회원정보의 영리 목적 이용 등의 문제는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value), 교육가치(education value), 지역개발 효과(고용효과, 관광효과 등)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편익을 낳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장 경제에 전적으로 맡기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작게 생산됨으로써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Frey and Pommerehne, 1989, Duffy, 1992, 임상오, 공연예술시장의 특성과 공연예술정책의 과제, 재인용)

<표 1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요인	성격	지원 필요성
공공재 화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투영하는 역할 -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영역에 대한 지원 필요
	공공재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발생 - 시장실패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시장실 패	비용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활용 및 다차원적 활용을 통한 비용체감 필요 (소비계층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소비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평균 비용 이상의 생산가격에 대한 지원과 다차원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독점경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의 제한으로 인해 공공적인 통제 내에서 가격 조정 필요 - 비주류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비용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간에 투입된 만큼의 생산효과를 거둘 수 없음.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필요
	시장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산업인 만큼 예술시장의 회임기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길며, 결과물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 - 예술의 다양성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필요
외부성 과 공공편 익	집단편익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은 사회적인 유산가치와 위광가치, 교육가치, 지역경제에 대한 편익, 예술참여자들의 사회적 증진을 내포하고 있음.
	소득재분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을 통해 문화적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 사회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룰 필요가 있음. - 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추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¹⁵⁾

15) 자료 출처: James Heilbrun & Charles M Gray, 이홍재 옮김, 『문화예술의 경제학』, 살림, 2001, pp.151-185, 한국문화경제학회 지음, 『문화예술의 경제학』, 김영사, 2001, pp.172-186, 최영섭, 『문예진흥기금의 적정규모 산정 및 재원확충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pp.3-12 참조

<표 12>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설문 결과 (호주, 1982) (표본수: 827)

질의내용	찬성 (%)	반대 (%)	모르겠다 (%)
1)일반: 예술편익은 공연에 참가한 사람에게만 귀속 된다	34.9	64.1	1.0
2)존재가치 : 예술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97.0	2.3	0.7
3)위광가치 : 호주 출신화가, 가수, 배우의 성공이 호주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준다	94.8	4.4	0.8
4)교육가치 : 어린이들이 교육과정 중에 음악, 미술, 드라마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96.4	3.2	0.4

(Throsby and Wither, 1983, Frey and Prommehrne, 1989, 임상오, 공연예술시장의 특성과 공연예술정책의 과제, 재인용)

하지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따라 분배되는 공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제로섬(Zero-Sum)적 갈등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이 납세자들의 최대 관심인 현 상황에서는 공공복지, 의료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지출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중 어떤 것,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대한 지출이 더 그들의 삶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에 과다하다는 논란은 없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비용의 박탈로까지 느껴질 만큼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삶의 질의 척도로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문화 소외층이 확대되는 시점이 곧 도래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자원 배분의 정당성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것이다.¹⁶⁾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 집

16) 2000년 문화예산 관련 국민여론조사(한국문화정책개발원 실시)에서 “문화예산 1%의

행 행위의 수혜자로서, 여론 형성자로서 문화예술 분야로의 공공 자원의 배분을 지지해줄 지지층 확보와 이를 위한 자원 배분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을 지역통화와 연결하면 그 구성원들의 성격상 보다 활동적인 여론 형성층 및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간적인 공동체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삶의 질 향상은 경제적 요소와 같은 단일 항목으로 규정될 수 없고,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종합하여 구축되므로, 이를 충족시키는 정책 간 자원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정책 분야의 우위 논리를 앞세운 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가지 자원으로 가능한 한 다수의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지역통화의 결합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참여적 문화 복지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정책 도구로서, 이와 관련하여 문화, 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 자원 배분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들의 활동 내역이 곧 신용으로 축적되고 기록되는 지역통화는 문화예술 분야로의 공적 자원 배분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역통화 회원들의 참여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 지원 작품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지역통화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문화향수권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 (33.2%), "더 늘어났어야 한다"(28.9%)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증대에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 62.1% 였으나, "문화보다 시급한 분야에 더 많이 배정되었어야 한다"(37.9%)라는 대답이 단일 대답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저학력, 고연령자일수록 그러한 답변 비율이 높았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문화재정과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 p42)

선정 평가시 해당 단체의 문화통화 거래 내역은 관련 활동 실적 자료로서 매우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라)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 :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복지

이 시대의 문화예술정책은 앞서 말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이 경험한 한계와 문제점 이외에도 시민 사회의 도래, 생활수준의 향상 등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문화 복지와 문화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주요 당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문화복지와 문화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24대 세부 추진 과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13> 참여정부 문화 정책 5대 기본 방향 및 24대 세부 추진 과제 (부분): 출전
(참여정부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공개 워크숍 자료집, 2004)

5대 기본방향	24대 세부추진과제
I.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 문화의 질 제고 -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 양성평등 문화 확립 -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확대

(ㄱ)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통화

존 랑스테드(Jorn Langsted)는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Culture for Everybody)”라고 한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Culture by Everyone)” 라고 문화수용자의 주체적 측면의 강조로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즉, “문화의 민주화”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급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티켓 가격의 할인, 마케팅의 항상 전략을 사용했던 데 반해, “문화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고급 예술의 보급보다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표 14>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전략 비교

문화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문화민주주의 (Culture Democracy)
-단일문화 (Monoculture)	-문화 다양성 (Plurality of cultures)
-기관 중심 (Institutions)	-비공식적 조직 중심 (Informal group)
-제공되는 기회 (Ready-made Opportunity)	-역동성 (Animation)
-구조 만들기 (create framework)	-활동 만들기 (Creative activities)
-전문가 중심 (Professional)	-아마추어 중심 (Amateur)
-미적 질 중시 (Aesthetic quality)	-사회적 형평성 중시 (Social equality)
-보존 (Preservation)	-변화 (Change)
-전통 (Tradition)	-개발, 역동성 (Development, Dynamics)
-정책적 진흥 (Promotion)	-개인적 활동 (Personal activity)
-생산물 (Products)	-과정 (Processes)

(Jorn Langsted, 1990, 김경욱, 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구성)

특히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의 문화정책은 사회 복지 서비스, 교육, 도시 계획 등의 다른 분야의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즉,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보급과 개발이 문화부라는 한 부처에 국한된다면, 문화 민주주의적 문화 정책은 문화부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부 등 연관된 부처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문화 민주주의적 정책 방향 하에서 예술소비자는 기존의 수동적인 예술소비에서 탈피하여 예술 활동에의 참여라는 보다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김경욱, 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야 말로 문화 참여의 확대를 주 목표로 하는 측면에서나, 타 분야와의 연결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통화와의 연결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인 것으로 기대된다.

(ㄴ) 문화복지와 문화통화

아직까지 정책으로서 문화복지를 언급할 때는 주로 문화소외층에 대한 문화향수권 신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솔직히 음악 CD 보다 쌀이 더 급하고, 공연 보는 시간도 생업을 위해 할애하기가 아까운 사람들을 모셔 와서 “관람하게” 만드는¹⁷⁾ 억지 춘향 식의 문화 향수권 신장 보다 본질적인 문화복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즉, 변화하는 생활 수준에 따라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문화복지는, 일상과 동떨어진 “별식”의 제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게 “생활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소득의 증가나 소득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의 확충은 삶의 질적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지만, 문화적 복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보완재로써 중요하다는 점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명제만큼 당연시 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고급 상품 소비문화로 경도되고 있는 “웰빙” 열풍에 대해 그 본질을 찾자는 “문화적 웰빙”의 요구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문화 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화예술 관련 변화로서는 체험형 문화시장과 자기 계발형 문화교육의 확산, 매니아주의

17) 최근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우리가 찾아가니 모여 주세요”식의 모셔 놓기는 여전하다.

와 문화공동체의 확산, 가족형 문화활동의 확산 등의 긍정적 변화이외에 문화소외계층의 확대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다 나은 삶의 요소로서 확대되는 문화적 복지의 요구, 또는 새로운 소비문화로서 “웰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문화소외층¹⁸⁾이 “공공적 웰빙”으로서 문화적 사회복지를 사회적 비용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적 문화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타 부문과의 분배 갈등에 따라 이 분야의 정부 일반 재정의 점증적 증가와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의 증가 간에는 과거보다도 더욱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석, 문화예술 재정의 확충과 배분)

즉, 앞으로 중요시 되는 문화 복지는 문화를 삶의 질의 일부분으로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 속의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또다시 경계해야 할 점은 삶의 질의 일부로서 문화 복지의 욕구가 또다시 물질위주로 흐르는 것이다. 미술관, 공연장이 몇 개 있는 구에서 살며, 한달에 고급 공연을 몇 회 관람하는가 하는 물리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인간관계 속의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이 삶의 본질적인 질을 높여주는 복지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통화는 “생활 속 문화 복지”의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쉽게 간과하는 문화 복지의 과제는 문화예술 생산자, 즉 문화예술인의 복지문제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문화예술인 역시 빈곤층으로 문화 복지 정책의 또 다른 수혜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특히 항상 존재하는 사회 공공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는 사적 영역의 역할 확대가 특히 이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확대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만큼의 문화 향수권을 사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면 개인의 경제 부담이 너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계층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18) 대다수의 경제적 중산층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히 정보의 소외로 인해 문화소외층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리고 시장 논리에 맡겨진 싸구려 “문화적 웰빙”은 문화예술인들을 값 싼 강습 교사로 전락시켜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자동 가격 형성 기능의 확대, 즉 시장에 의한 하향 평가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낙관론과는 달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예술 시장의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변화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문화예술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어 점진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되고 있다. 문화통화는 보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될 문화예술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 영역을 확보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은 문화 복지의 정책 과제들을 해결할 방책으로서 문화 거래를 도입한 지역통화는 앞서 언급한 특징으로 인해 매우 강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역통화로 시행한다면 일방적 시혜가 아닌 상호 부조와 참여적 거래에 의한 문화거래가 활성화되고 문화 소외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창조자들에게도 공적 부조의 효과를 유발할 것이며, 단일 자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자원 배분 행위로 정책 수요자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2. 지자체 문화재단의 독창적 실험으로서의 가능성

최근 지자체 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는 것은 다른 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가지는 효율성을 문화정책 부문에서도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추세로서 환영할 일이다.¹⁹⁾ 그러나, 근원적으로 경제적 채산성을 기대하기 힘든 공공 서비스 분야인 문화예술 부문의 집행을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은 공공 재원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19) 완전히 적절한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영국에서는 사회간접 자본 등 공공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30% 정도로 보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 1998, 인프라시설에대한민자유치종합 계획, p5)

따른 민간 집행 기관의 정체성, 독립성, 자율성, 재원의 확보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지자체 문화예산을 출연 받아 설립되고, 운영 경비를 보조받는 문화재단들에게 설립 전부터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지자체 문화재단들은 우선 지방 정부가 문화행정의 새로운 주체로서 민간 재단을 별도 설립한 당위성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문화재단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한 안정되고 독립성 있는 재원 확보 문제는²⁰⁾ 그 존재 가치가 확보됨과 동시에 그 심각성이 매우 경감되기 마련이다.

문화재단이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길은 그 사업 역량을 키워,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항상 문제해결자로서 고객 즉, 시민, 문화예술계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손댈 수 없는 독창적인 사업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단을 공공 부문과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과 현장에 가까이 있음으로서 정부보다도 더 빨리 정책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융통성 있고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개발해내야 한다.²¹⁾

문화통화의 도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도 훌륭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 문화재단의 독창성과 시민과 가까운 정체성을 십분 홍보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민간이면서 공공 부문에 가깝고, 공공 재원을 사용하면서 민간에 가까운 재단의 정체성을²²⁾ 십분 활용하여 문화통화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20) 절대로 “충분한” 만큼의 재원이 확보될 수는 없지만

21) 문화재단에 주어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뒷 장에서 활용방안으로써 문화통화를 다룰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2) 이러한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바로 위협요소가 된다.

3. 제휴의 기대효과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이 제휴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앞 절 각각의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모두 다 언급하였다. 상호 보완적인 제휴로서 성립된 문화통화는 공공 재원을 집행하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정책 수단으로 도입됨으로서 지역통화는 근원적인 시스템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고, 문화예술 정책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문화통화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뒷 절에서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분석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각각의 한계와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서술한 문화통화의 기대효과를 요약 정리해본다.

<표 15>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지역통화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대 효과	문화예술 거래 도입을 통한 지역통화의 기대 효과
(1)문화예술 거래의 촉진 -문화향수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장벽 완화 -문화예술 마케팅의 타겟고객 확보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예술인의 실업 해소 효과	(1)커뮤니티 내 거래 활성화 품목 제공 -상품 시장 경제의 폐해가 없는 품목 -회원의 문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비재
(2)문화생태계 육성 -문화예술 시장의 성장 기반 육성 -자원의 배분에 대한 지지 기반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산업/마케팅 기반으로 활용 가능	(2)거래의 광역화에 적합한 품목 제공 -지역통화의 철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광역 거래에 적합한 품 목 -Inter-LETS 거래 시 환전 기준으로 적합한 품목

<p>(3)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자원 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원의 확충 효과 -지역간 문화 불균등 구조 개선 	<p>(3)거래 비용 총당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예산 활용
<p>(4)공공 자원 배분에 대한 당위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예산 확보의 지지 기반 확대 -문화, 교육, 사회복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 효과로 공공 자원 배분의 정당성 부여 -소비자의 높은 참여도를 활용하여 대안적 지원 평가시스템으로 활용가능 	
<p>(5)문화민주주의 정책 과제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교육, 복지 등 타 정책과의 연계 효과 	
<p>(6)문화복지 정책 과제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소외층 확대에 대한 대응책 -전반적으로 높아진 문화복지 욕구충족 -문화예술인의 증진 복지 효과 	
<p>(7)문화재단의 새로운 정책 수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 사업 방식으로 재단 정체성 홍보 -현장과 가까운 사업 수행 방식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통화는 상호 보완을 통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휴의 대상으로서 신설 문화재단의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문화통화의 개념설정

문화통화, 즉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제휴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 분야간의 제휴의 성공 가능성과 효과가 상호 약점을 적절히 보완하는 성공적인 제휴일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자 모두 개별적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와 한계에 봉착한 사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기관의 정책으로서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제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그 계획이 기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득의 논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 문화재단의 정책 수단으로서 문화통화를 도입할 경우,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의 진흥”의 입장에서 기존의 지역통화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의 방향성을 확정한 후 이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문화통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지자체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문화통화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다.

여기까지의 논의에서는 “문화통화”를 “지역통화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품목의 거래를 주로 하는 지역통화” 정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용시켜왔어도 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실질적인 문화예술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논의함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한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도입할 세부 시스템들의 차이는 무시하고 “문화통화”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문화통화”는 앞서 제시한 대로 “문화예술 관련 품목의 거래를 주로 하는

지역통화 거래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지역통화” 자체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논의 대상이 전체적인 개념일 경우에는 거래 시스템을 지칭하는 “문화통화”나 거래화폐 단위를 지칭하는 “문화통화”로 표기하나 의미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문에서 지칭하는 문화통화는 문화예술을 주 거래 품목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지역통화 커뮤니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될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지방자치 정부의 문화행정 당국이 “문화예술 진흥”²³⁾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공공 부문의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통화로 인식하기로 한다. 이 문화통화의 거래 품목은 문화예술 관련 품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통화 시스템과 시장거래에서 통용되는 모든 품목들이 거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문화통화는 “문화예술 거래를 주로 하는 지역통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량 도입된 지역통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지역통화를 “보완”하고 “변형”함에 있어서, 그 효율적 측면에만 집중할 뿐 굳이 지역통화의 철학을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의 정당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다음 절에서 정리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거래 시스템적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지역통화 중에서도 레츠(LETS) 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거래 등록소 역할은 지자체 문화재단 또는 지자체의 문화 행정 당국이 수행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육성한다. 모든 거래의 등록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등록 및 관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지만, 각각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채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문화통화의 개념을 규정짓지는 않는다.²⁴⁾ 문화통화의 가치와 거래 품목

23)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것도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문화재단들이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의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할 뿐, 그것의 정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을 들이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24) 다만, 문화통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안할 광역거래(Inter-LETS)의 관리가 쉬우려면

들의 가치는 일반 시장 거래에서의 법정 통화와 상품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한다. 다만 개별 거래 품목에 대한 가격의 최종 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지자체 문화재단과 같이 공공 재원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통화의 특징은 지역통화 거래의 바탕이 되는 신용 보증을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회원들이 원할 시에는 계좌에 누적된 지역통화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것이다. 앞 절에서 지역통화의 한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대로, 문화통화는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소규모 단위 시스템들²⁵⁾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간의 광역 거래 (Inter-LETS 거래)를 중앙거래등록소가 주선하는 형태를 추구한다.²⁶⁾ 이때 녹색화폐처럼 문화예술 거래를 주로하지 않는 지역통화들도 문화통화와 광역거래의 합의에 따라 문화통화의 단위거래등록소로 확보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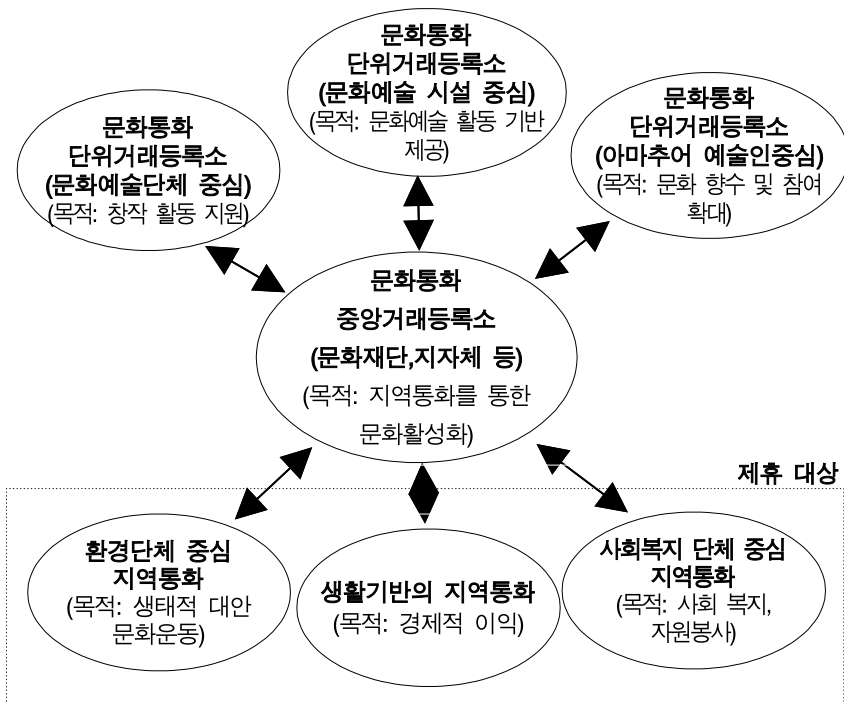
기존의 레츠 시스템처럼 일반 회원들의 거래는 레츠 방식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성사된 후 해당 단위거래등록소에 거래 내역을 등록, 관리한다.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회원 단위가 아닌 단위거래등록소 간의 거래를 레츠 거래 등록 방식으로 등록, 관리한다.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중앙거래등록소는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시설, 단체, 동아리 모임 등을 거점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참여”,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 “문화소외층의 문화 복지 제고” 등의 세부적인 목적에 맞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등록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9월 22일 Dundee에서 열린 LETS Link Scotland Workshop에서는 분산된 개별 레츠 시스템들 간의 거래(decentralized trading)에 가장 적합한 웹 기반의 거래등록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25) 이 같은 단위 문화통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래등록소를 “단위거래등록소”라고 하고, 이들 간 광역거래를 주선하며 전체 문화통화 시스템을 관장하는 거래등록소를 “중앙거래등록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 26) 마이클 린턴은 “멀티 레츠”(Multi- LETS)라는 개념으로 소규모 단위 레츠의 한계를 넘어서서 광역거래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문화통화 시스템의 단위거래등록소로 육성하고, 이들 사이의 광역거래를 주선하고 연계하여 전체 문화통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통화의 광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환경보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기존에 활동 중인 지역통화 단체들도 제휴를 통해 문화통화 시스템으로 규합하여야 한다. 각각의 단위 시스템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그 성격에 따라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7>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한 광역거래

<표 16> 문화통화의 개념 요약

비교항목	문화통화	레츠 시스템
시스템 명칭	-문화통화 (Cultural LETS)	-지역통화(LETS) (시스템별로 개별 명칭 사용)
화폐명칭 및 단위	-문화통화 (CM : Cultural Money)	-시스템마다 특징적인 명칭 사용 (두루, 녹색화폐, WATT, LETS, Talent 등)
운영 목적	-지역통화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상호 부조, 사회 복지,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개별 목적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화폐가치 및 가격결정	-1CM = 1원 -시장 가치 기준, 당사자 합의로 최종 가격 결정	-시스템마다 개별 규정 -가격 기준표 제시, 당사자간 합의로 가격 결정
거래 방식	-LETS 거래 방식 -인터넷으로 등록 (통장 기장 등 시스템별 채택) -Inter-LETS 광역 거래 가능	-회원 합의로 거래 성사 후 거래 내역 등록 (인터넷, 전화 등록, 통장 기장 등)
주 거래 품목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 관련 품목 : 장소 및 장비 임대, 게런티, 인쇄비, 공연 기획비, 재료비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활동 관련 품목 : 입장권, 예술 교육, 축제 참가, 등 -지역자치단체 행정서비스 : 문화 복지, 사회 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 -기타 재화 및 서비스 :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 및 제화	-해당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전문 서비스, 생필품, 재활용품, 자원봉사 등
통용 지역	-단위거래등록소를 통한 회원 간 거래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한 단위거래등록소 간 광역 거래	-해당 시스템의 회원 간 거래 (Inter-LETS 가능성 제기)
거래 등록소	-지자체, 문화재단 등 공공 부문이 운영, 지원 -주요업무 · 전제 거래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홍보, 소식지 발간(웹진), 특별	-민간에서 자발적 운영 : 일부 정부 지원 사례도 있음 -주요업무 · 거래 등록 및 관리 · 홍보, 소식지 발간 ·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p>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 협의체 운영 · 단위 문화통화시스템 지원 : 범용 거래 등록 시스템, 최소 운영비, 신입 회원에 대한 가입 축하금, 홍보 지원 등 · 지역거래등록소 간 광역거래 주선 · 문화통화의 현금 환전 	
단위거래등록소	<p>-민간에서 단위거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운영</p> <p> :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지원</p> <p>-개별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거래 시스템을 중앙거래등록소 제공 범용시스템 변형하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등록 및 관리 · 홍보, 소식지 발간 ·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p>행사 개최</p> <p>-적정 규모 : 200~300명 회원, 2~3명 운영 요원</p>	행사 개최
현금 환전	<p>-단위거래등록소를 통해 현금 환전 요청하면 중앙거래등록소가 심의 후 현금 환전</p> <p>-현금 환전은 문화예술 활동에만 국한하며, 필요시 수수료 책정</p>	-현금 환전 안 됨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성될 대표적인 지역 단위 시스템들을 유형별로 예측해보면 <표4-17>과 같다.

<표 17> 단위 거래시스템의 가능한 유형

가능한 유형	잠재 회원	거래 형태	기대 효과
1)전문 문화예술 단체 중심	-전문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관련 산업체 (무대장비,인쇄,기획사 등) -문화예술 공간 -회원 등 관객 -문화지구 주변 상가	-공연/전시 준비 -공연/전시 관람 -공간 대여 -개런티 지급 -생필품 구입	-창작지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2)아마추어/인터넷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	-아마추어 동호회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연습실	-연습실 사용 -공연준비 -전문가 초빙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 보장
3)공연장, 문예회관 등 문화 시설 중심	-문화시설 -일반 시민 -예술가 -문화시설 내 상업 시설	-공연/전시 준비 -공연/전시 관람 -공간 대여 -개런티 지급 -생필품 구입	-시민 문화향수권 제고 -창작 지원
4)지자체 복지회관 등 주민 문화 교육 중심	-지자체 구민회관 등 -지역 주민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아마추어 동호회	-문화 교육 수강 -강사로 지출 -연습/발표 장소 대여	-시민 문화향수권 제고 -아마추어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역 공동체 회복
5)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 중심	-축제 주최자 : 조직위, 지자체 등 -축제 참가 예술단체 -축제 참가 아마추어 단체 -축제 참가 시민	-축제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참여 -아마추어 공연 개런티	-축제 행사 참여도 제고 -연례 행사에 대한 고정 관객 확보 -문화통화 홍보 특별 행사로 활용
6)생활 협동조합 등 주민 생활 기반 중심	-지역 주민 -지역 기업 -관련 협동 조합	-협동조합 거래 -지역 문화행사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 -문화예술인 상호 부조 및 사회보장
7)환경운동, 공동체 회복 등 기타 목적의 단위 시스템	-시민 단체 -후원 기업	-시민 단체 활동 -문화 행사 -연계 행사	-기존 시스템을 규합하여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

5. 문화통화 활성화의 방향 설정

지자체 문화재단이 정책 수단으로서 문화통화를 새롭게 도입하여 활성화 하는 경우, 그 정책에 합당하는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 수행 태도를 설정하고 가용 역량을 그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화통화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통화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문화재단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화 자체의 철학의 고수와 시스템의 변형 사이에서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뿐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의 핵심인 문화운동의 경우, 그 철학의 준수가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효율성으로 나타나는 점을 명심하여 맹목적으로 단기간의 효율성 제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시스템 규모의 확대에 있어서도 작은 규모의 단위 시스템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자생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²⁷⁾

이를 위해서 지역거래등록소를 중심으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지역통화 거래를 하는 소규모 지역단위 시스템들을 먼저 육성하고 재단이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이들 간의 광역거래를 매개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문화재단 주도하에 문화거래를 주로 하는 새로운 지역통화 단체로서 문화통화 지역단위시스템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공동체 회복,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활동 중인 지역통화 단체들을 규합하여 문화통화 거래의 지역 거점(Node)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초기에 인위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지역단위 시스템이라도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지나치게 광의의 목적을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문화 참여,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 문화소외층의 문화복지 제고 등의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

27) 녹색연합에서 운영하는 지역통화 시스템 “작아 장터”는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운영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고 그에 따라서 해당 시스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단체, 모임의 목적과 활동 방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인큐베이팅 과정에서도 중앙거래등록소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진행보다는, 홍보와 권고를 통해 공감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향후 활발한 자생력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과 지역통화라는 이상적인 시민 참여 모델 모두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철저한 대립과 자립을 추구하는 철학적 아집도 경계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선의로 가장한 지나친 지원과 간섭도 동시에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책 수단이든지 그 효과가 100% 입증되기까지는 “대안책”이 아닌 “보완책”으로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험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6. 문화통화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앞 소절과 같이 개념과 활성화 방향을 설정한 문화통화는 문화예술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의 문화예술과 지역통화의 전략적 제휴이기 때문에 지역통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한 문화통화의 활성화에 앞서, “문화예술의 진흥”라는 점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문화통화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쟁점들 중 일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지역통화 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1) 공공부문의 개입과 거액 거래자의 시스템 장악 가능성

마이클 린턴은 정부가 레츠를 “연구하고”, “알리고”, “협조하고”, “참여하

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되 “방관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레츠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시스템이나 규모의 우위를 이용하여 레츠 시스템을 장악”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Linton, Michael, 1994, The LETSystem Design Manual, Landsman Community Services Ltd.)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통화 단체인 한발레츠의 박용남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통화운동의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운영의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속성상 정부나 공공 부문이 시스템의 운영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성공의 싹이 보이는 시민운동을 지원한다고 정부가 개입하여 본래 의도를 변질시키고 망쳐놓고, 시민들이 외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지방 자치 정부가 보조금의 지원이나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지역통화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 정부도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총 레츠의 25% 정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칼더데일 지방의회, 프롬 군의회, 엑스마우스 의회 등 몇몇 지방 정부 기구는 레츠 회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간섭 이외에 정부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²⁸⁾, 린튼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개인 회원들의 거래에 비해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지역통화 시스템을 장악해버리고, 이로 인해 개인회원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통제받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통화에 기업이나 개인의 거액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시스템 안에 실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 계정, 즉 돈이 넘

28) 맨체스터 레츠가 시의회의 1만파운드 지원 제의를 놓고 회원간 격론 끝에 제안을 거절했던 경우처럼

쳐난다는 것은 결국 법정통화의 인플레이션과 같이 문화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할인 쿠폰이 넘쳐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의 실제가치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진 것과 유사한 경우이다.

앞서 소개한 영국의 칼더데일 지방의회 사례처럼 기부하더라도 그 기부자가 적극적으로 문화통화 거래에 참여하여 적립한 문화통화 (+) 계정으로 주어지는 기부는 바람직하다. 또한, 기부된 (+) 계정이 한꺼번에 큰 규모로 사용되더라도 문화소외층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금, 문화예술 창작 단체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 문화통화의 신규 회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통화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원금이 현금일 경우 뒤에서 알아볼 현금 환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문화통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공공 부문이 문화통화에 개입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문화통화 운영 주체가 정부보다는 좀더 민간에 가까운 문화재단이 적합하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통화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공공 재원은 우선 시스템 구축, 홍보, 중앙 거래 등록소와 단위거래 등록소의 운영비 지원 등 시스템의 기초를 구성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고, 기부 등을 통해 얻어진 잉여금은 문화소외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신규 회원 확대 등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는데 사용한다면 오히려 문화통화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 실패 사례처럼 회원들이 공공 지원에 대한 일방적인 수혜적 자세로 편향되어 적극적인 (+) 계정 문화통화 거래에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여야 한다.

(2)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한 광역거래

지역통화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마이클 린턴이 제안한 멀티레츠 (Multi-LETS) 시스템은 개별 회원들이 여러 개의 레츠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통적으로 레지스터리 시스템(Registry)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표 18> 마이클 린턴의 Registry를 통한 멀티레츠 시스템

회원명 (Name)	아이디 (ID)	레지스터리 시스템 (Registry System)	육아 레츠 (Child Care)	집수리 레츠 (Housing)	환경운동 레츠 (Environment)
Jill Brown	jb	가입		가입	
Pete Wood	pw	가입	가입		
Kim McLeod	km	가입		가입	
Mary Dalton	md	가입	가입		
Betty Benn	bb	가입			가입
Phil Kingham	pk	가입			가입

한편, LETS Link Scotland (LLS) 소속 14개의 레츠 시스템 간의 광역거래 (Inter-LETS Trading)는 Scotbarter²⁹⁾를 통해 중계된다. 각각의 레츠 시스템은 Scotbarter 계정을 1개씩 보유하고 회원들이 다른 레츠 시스템과 거래를 원할 경우 이 계정을 통해³⁰⁾ 거래가 성사된다. 각 시스템마다 1명씩 대표자가 있어서 광역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광역거래가 이루어진다. 두

29) Scotbarter는 LLS와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전원 포럼 (Scottish Rural Forum)에서 농촌지역의 산업을 장려하고 자선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Barataria 재단에서 지원하여 구성되었다. 현재는 LLS의 14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레츠 회원이 아닌 일반 거래자들까지 이용하는 "스코틀랜드 레츠 시스템의 은행"이 되었다.

30) 이것을 "Scotbarter show account"로 표현하였다. (LETS link Scotland Workshop 보고서, 2002년 9월 22일, Dundee)

경우 모두 대면 관계를 통한 보다 공고한 내부 결속으로 각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는 믿음과, 동시에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상충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LLS의 전체 관리자(LLS National Administrator)인 David Robertson이 LLS 워크숍에서 각 레츠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경우에만 Scotbarter를 경유한 광역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문화통화의 광역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마이클 린턴의 레지스터 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각 단위거래등록소 소속 회원 아이디를 이메일 주소와 도메인 형태로 부여하고³¹⁾, 그 계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며, 문화재단이 Scotbarter와 같은 광역거래등록소 역할을 하도록 한다. Scotbarter와 LLS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 회원들은 단위거래등록소의 Shadow Account를 이용하여 광역거래등록소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과의 광역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³²⁾ 실제 거래는 Shadow Account를 통해서 세 번의 거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Shadow 처리가 되어 거래 당사자는 각자의 지역단위 시스템 안에서 거래하던 것처럼 한번의 거래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느낄 뿐이다.

LLS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지만, 광역거래를 지역거래등록소에서의 환전을 통해서만 가능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광역거래는 거래 활성화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역통화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본말이 전도될 정도로 광역거래가 빈번해질 경우에 시스템 내 회원들

31) 앞 소절의 문화통화 개념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인터넷의 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계정의 관리가 가능하다.

32) 이 광역거래의 방법에 대해서는 뒷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기로 한다.

간의 연대감의 소멸과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결국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통화 거래에서 회원들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 또는 동료 회원에 대한 채무의식에서 비롯되는데 외부 시스템과의 직접거래가 빈번해진다면 그 회원은 당연히 자기 시스템 내 회원에 대한 채무의식 보다는 외부 시스템에 대한 채무 의식이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기 시스템에 대한 충성도는 감소될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에 빠진 회원들이 만들어낸 마이너스(-) 계정의 누적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단위거래등록소 쪽에 일방적으로 쌓이는 플러스 (+) 계정이 효용 가치가 없어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 압박을 가져오게 된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역통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실제로 회원 간에는 광역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 거래는 단위거래등록소와 회원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일단 회원들이 지역을 넘나드는 부의 유출 효과는 일차적으로 완충된다. 단위거래등록소 간에 발생한 실제 거래는 다시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하게 되므로 문화통화 시스템이라는 광역 개념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아서 또다시 부의 유출이 방지되고, 거래 실적에 따라 각 단위 시스템에 대한 운영 지원이 주어지므로 각 단위 시스템의 전체 부는 일정하게 관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현금 거래와 현금 환전

기존의 레츠 시스템에서도 거래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많은 회원 확보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현금 거래를 인정하는 경향이 많지만, 현금거래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통화가 법정 통화의 시장 거래를 보조하거나, 마케팅 전략으로 할인권을 끼워주는 것과 같아져서 지역통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³³⁾.

문화통화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 공공부문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조건으로 문화통화 거래의 신용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아지는 비용의 부담과,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통화가 할인쿠폰 정도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의 일부를 할인해주듯이 덤으로 문화통화 거래 비율을 추가하는 병폐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 환전은 회원들이 단위거래등록소를 거쳐서 중앙거래등록소에만 요청할 수 있고, 일정한 심의를 거친 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³⁴⁾. 현금 환전은 문화예술가 및 단체,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등이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래를 현금으로 성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해당 거래 대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형태로 그 단체가 적립한 문화통화만큼의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회원(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과 해당 거래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 환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실적을 근거로 문예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절차 및 효과가 비슷하다. 실제로 이에 필요한 재원도 재단의 문예지원사업의 일부를 문화통화 형태의 지출 항목으로 따로 책정해둬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³⁵⁾ 이렇게 함으로서 똑같은 지원금액으로도 문화예술 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문예지원금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을만큼 평소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 주어지면 그것만큼만 창작활동을 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창작 태도를 키워준 폐단이 있다.

33) 한발레츠의 경우 한 주유소에서 거래 금액 중 5%를 지역통화로 결제하겠다고 제의 하였으나 회원간의 논의 끝에 70%이상의 현금 거래는 불허하기로 하였다.

34) 한발레츠는 거래등록소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가입비와 수수료로 모아진 등록소의 지역통화 “두루”만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예외 조치를 인정했다.

35) 또는, 문화통화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시스템의 확대 : 규모의 확대인가, 숫자의 증가인가?

지역통화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철학에 위배되지만 시스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서 논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문화통화는 작은 단위 거래 등록소들 간의 광역 거래를 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³⁶⁾. 이 경우 기존에 지역통화의 거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게 한 이유인 부의 외부 유출이나 상품의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등은 문화예술의 경우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이에 따른 지역의 부의 유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통화의 무한정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가용 재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단위거래등록소 간의 광역거래 체계로 구성된 문화통화의 경우 시스템의 확대는 개별 단위거래시스템 크기의 확대로도 가능하고, 단위거래 시스템들의 숫자의 증가로도 가능하다. 앞서 지역통화의 회원 수의 증대가 회원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심리적 거래 비용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통화의 단위거래시스템들은 적절한 회원 규모를³⁷⁾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인터넷 동호회 형태라도 회원들의 결속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단위거래시스템들의 신규 등록을 지원하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36) 실제 중앙거래등록소와 단위 거래등록소를 통한 광역거래 설계는 더욱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다.

37) 보통 200~300정도를 적정 회원 규모로 본다. 영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맨체스터 레즈는 회원 수가 약 700명 정도라고 한다.

(5)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 허용

지역통화 거래에서도 법정 통화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지역통화의 좋은 철학을 일찍부터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운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저변 확대의 방편이기도 하며 본 사업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어린이의 지역통화 거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영국 솔즈베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환교역기구 Kids Exchange and Trading System (KETS)” 같은 어린이만을 위한 별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Jonathan Croall, 박용남 번역, 1997, LETS Acts Locally,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p42) 이 시스템에서는 어른들은 지역통화 “애블”로 거래하고 어린이들은 그들만의 지역통화 “케블”로 거래한다. 이 경우 어린이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제공 품목이나 필요 품목의 등록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통화 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급 학교나 동아리들을 거점으로 미성년자로 구성된 단위거래 시스템을 설립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단위거래 시스템 내에서 미성년자 회원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보호자의 허락이나 서면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규정하여 거래의 수월함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위거래등록소 관리자 역할만 성인이 담당하여 문화예술 교육차원에서 회원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방법을 교육하여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고, 광역 거래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도 관리 감독하는 방법도 제안 가능하다.

7.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

마이클 린턴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레츠 시스템의 경우 “회원들 각자가 스스로 시스템을 통제할 충분한 정보가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도 우선 시스템을 구성하여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한 그것을 조직하는 사람(Organizer)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³⁸⁾ 또한 린턴의 레츠 매뉴얼에는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레츠 운영조직으로서 “거래등록 관리자”(Recording Co-ordinator)³⁹⁾와 “간사”(stewardship)로 구성된 “거래등록소”(Registry)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자문단” (Advisory Group)이 필요하며, 이들도 구태여 형식적인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고, 성문화된 규칙도 필요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결한 거래등록 관리자나 간사의 역할을 자원봉사나 특정 회원의 희생으로 충당하고, 그것도 결국 원만하지 못하여 시스템 폐쇄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화재단 같은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철학의 고수에 따른 반대보다는 상호 보완적 타협이 현명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역통화보다도 더 생소한 문화통화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조직운영자가 될 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 4-19>와 같은 역할들이 요구된다.

38) In a LET System there is always enough information to allow participants to regulate the system themselves. There is no need for a separate group to "govern" the system. But organizers are needed to make the system. (Linton, Michael, 1994, The LET System Design Manual, Landsman Community Services Ltd.)

39) 실제 거래등록 및 관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등록 관리자가 할 일은 이 프로그램의 관리이다.

<표 19> 마이클 린턴이 제안한 레츠 조직의 구성 요소

구 분	역 할
거래등록 관리자 (Recording Co-ordinator)	-회원들의 거래 등록 -거래 희망 상품 정보 제공 -사무국 계정 관리 -회원들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간사 역할 보조
간 사 (Stewardship)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계정 발급 유보, 거래 등록 불허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 보호 -외부 기관과의 협력
자문단 (Advisory Group)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집 창구 -거래등록자와 간사에 대한 자문 역할

(Linton, Michael, 1994, *The LETSystem Design Manual*, Landsman Community Services Ltd.)

<표 20>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역할 구분	세부 내용
가.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 : 시민, 문화예술단체, 지자체 등 참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전체 시스템 설계, 웹 기반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문화통화 홍보 : 언론, 대중 대상 홍보, 문화예술계 참여 유도 -회원 유치 및 관리 : 신규회원(개인, 단위거래등록소) 유치, 소식지, 웹진 발간 및 회원 대상 이벤트 개최
나. 중앙 거래등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단위거래등록소 간 광역 거래 관리 및 주선 : 거래 정보 교환 시스템 운영
다. 문화통화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통화에 대한 신뢰 기반 제공 -문화통화 거래를 위한 회원 신용 정보 제공 : 거래 기록 제공 -현금 환전 : 환전 심의 및 현금 제공
라. 공공의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자원 확보 -단위거래등록소 활동 지원 :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운영경비 일부 지원 -재단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원의 동원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

(1) 사무국으로서의 역할

문화재단은 우선 문화통화의 도입과 운영, 보급과 활성화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무국 역할을 하여야 한다. 린턴이 예시한 간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부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사무국에서는 개별 단위거래등록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등록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한다. 그리고 전체 문화통화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단위거래등록소의 거래 내역들이 통합 게재되어 하나의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제공 기능까지 하게 될⁴⁰⁾ “문화통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통화 사무국은 문화통화에 대한 인식 제고, 일반 시민 회원 유치와 특히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은 중앙 사무국과 단위 거래등록소의 공조 하에 이루어진다. 중앙 사무국에서는 문화통화 자체에 대한 홍보를 통합 거래 등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단위거래등록소에서는 각자의 성격에 맞는 회원들을 지역기반 또는 공유 철학 기반으로 확보하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신입 회원들에게는 거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과 동시에 소액의 가입 축하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은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제공하는 지역거래등록소에 대한 지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데 동의하고, 거래내역의 분석을 통한 문화향수 실태 데이터 제공 등 문화재단이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은 또한 비상 업적 목적으로 문화통화 회원 중 문화예술단체들의 마케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단위 거래 시스템 구축과 회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인터넷 동호회 형태의 활동 단체들을 규합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보다는 공유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시스템들이 반드시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빈번한 현장 대면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의 지속을 위한 회원 유대가 강화될 수 있었던 지역통화 운영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시스템은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시설, 아니면 최소한 동호회 등 세력 확장의 거점이 되는 핵심 세력이 있어야 한다.

40) 각 단위거래 등록소에서 등록하는 문화거래 품목, 요청 내역들을 통합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문화 정보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위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참여 회원간 합의를 통해 개별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의 수단으로 도입되는만큼 단위시스템의 대표들, 일반 시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이해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문화통화 시스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기존의 지역통화 사무국에서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정기 모임이나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였듯이 재단에서도 각 단위거래 시스템 관계자들의 정보 교환, 결속력 강화,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기, 비정기 모임을 문화 행사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원들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이 중앙거래 등록소와 지역거래등록소들의 연간 운영실적도 거래 등록 시스템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중앙거래등록소로서의 역할

문화재단은 회원 간, 단위 거래등록소 간의 거래를 등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⁴¹⁾를 개발하여, 중앙거래등록소로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단위거래 등록소들에게 범용 프로그램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41)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마이클 린턴은 “유일하게 권장할 만한” Registry 소프트웨어로서 “멀티레츠 매니저” (multiLETS Manager, version 1, Release 3)라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40K RAM 286 컴퓨터 수준이면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린턴이 소속된 캐나다의 Landsman Community Service Ltd, 와 호주의 Ecodata Design사에서 제작되었다. 반면 Inter-LETS 거래를 주도하는 LLS에서는 Stewart Nobles Zero Point Software team에서 개발한 SAM(System administration software)를 7개의 스코틀랜드 지역 레츠 시스템에서 사용 중이다. 잉글랜드의 Oswestry & District LETS처럼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www.trumphrust.com 참조). 지역통화 거래등록 소프트웨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더라도 쉽게 구축될 수 있고, 실제로 포인트 적립 형태의 사이버 머니와 구별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www.e-gold.com 참조)

단위거래 등록소를 통한 개별 회원들의 거래는 레츠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중앙거래등록소를 통한 단위거래등록소들의 거래도 각 단위거래등록소가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광역거래용 계좌(Shadow Account)와 중앙거래등록소의 계좌 간의 레츠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위거래등록소의 개별 거래 등록 시스템은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 안에서 개별 커뮤니티 형태로 별도 운영 공간을 할당받고 디렉토리 서비스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합 시스템이 거래 등록 및 관리 기능 이외에 참여형 문화 정보의 포털 사이트로도 기능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⁴²⁾ 각 단위 시스템의 회원들은 이 통합 사이트를 검색하여 자신이 속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품목을 찾아내고, 광역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문화재단은 이 거래 등록 시스템이 에러없이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문화통화에 대한 소식과 각 회원들에게 유용한 광역거래 정보를 웹진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중앙거래등록소 차원의 광역 거래 촉진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거래 침체를 방지하여야 한다.⁴³⁾ 그리고 전체 문화통화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단위거래등록소의 거래 내역들이 통합 게재되어 하나의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제공 기능까지 하게 될⁴⁴⁾ “문화통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42) 이런 기능은 최근 커뮤니티 중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문화통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와의 제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커뮤니티형 포털 사이트 구축, 회원 대상 정보 제공, 회원 충성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와 같다.

44) 각 단위거래 등록소에서 등록하는 문화거래 품목, 요청 내역들을 통합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문화 정보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문화통화 은행으로서의 역할

일반 시중 은행이 법정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 몇 배로 부풀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을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챙기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실제로 돈은 고객(채무자)에게로 넘어가지도 않고 단순히 은행이 고객의 거래를 위한 신용 보증 역할만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은행은 절대 자신들의 노고의 대가로 이자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고, 신용 보증이라는 것도 자신들의 거래 대상에 대한 신뢰도 평가의 과정일 뿐이다. 일반 시중 은행과는 달리 중앙은행은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권이 법정통화로서 이를 이용한 거래가 성사 될 수 있는 신용 기반을 법적으로 제공한다.

문화재단이 문화통화의 유통 과정에 개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고의 대가를 이자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 재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로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재단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된 것에 대한 보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문화재단은 우선 중앙은행권의 법정통화로서의 신용을 인증받아 사람들이 이를 믿고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문화통화를 마음 놓고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지역통화의 경우 그 통화에 대한 신용은 회원 간의 상호 신뢰에만 기반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개입으로 보다 광역 거래를 지향하는 문화통화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식적인 신용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영리 기관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는 지자체 문화재단이 문화통화 운영 주체로 적합한 이유 중 하나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통화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역 거래는 필수적이지만, 거래의 광역화에 따른 익명성의 증가, 이에 따라 증가하는 거래에 대한 심리적 비용의 증가 문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 또한 문화재단의 문화

통화에 대한 신용 보증이다. 또한 회원 간 거래 성사에 필요한 신용 정보 제공 및 신용 보증 역할도 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은행의 역할이다. 특히 현대 대도시의 인간관계는 익명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지속적 관계에서 쌓아진 신뢰보다 그때그때 관계 형성을 위해 “참고”할만한 “공인 신용”(Credit Reference)을 요구한다. 인터넷 동호회가 대표적인 익명성 관계 집단임에도 그 관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로 그 서비스 호스트가 회원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인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익명성이 높아지는 광역 거래에는 “공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회원에 대한 신용 정보는 모든 회원들이 거래 정보 공개의 원칙에 동의하고 거래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므로,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될 수 있으나, 그 신용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결국 공공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의 신뢰성에 기반한다.

금분위화폐 시대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태환(兌換) 요구에 응하여 언제라도 예금을 금으로 환전해줄 의무가 있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대로 금분위화폐 제도는 이러한 은행의 태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가 은행의 태환 능력 부재가 노출됨과 동시에 붕괴되었다. 문화통화와 문화재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문화재단은 문화통화가 언제든지⁴⁵⁾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많은 회원들, 특히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위거래 등록소를 통해 회원들이 요청한 환전 요구를 심의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문화통화가 모든 회원들의 가입 동기가 모두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금분위화폐제도처럼 문화재단이 문화통화의 현금 태환 요구를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 확산됨과 동시에 시스템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통화의 혜택과 목적은 경제적 이

45) 단 앞 절에서 문화통화에 대한 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통화의 현금 태환 요구는 그것이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재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

득 이외에도 많다는 점과 가입 시 현금 환전의 취지와 요건을 명확히 알려준다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통화 거래에 대한 부가 혜택을 개발하고, 문예지원 사업에 대한 일정 금액 의무 사용을 장려하고, 문화통화 활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문화통화가 실물 화폐에 의해 구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어떤 시스템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지역통화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그들이 만든 “돈”이지만 어쨌거나 “돈”을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각출하였다. 문화재단은 문화통화의 공익적 효과를 인정하여 공공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통화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 구축 비용, 홍보 및 회원 유치 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단위거래등록소 운영 경비 지원금, 현금 환전 요구에 응하기 위한 예치금, 등이 필요하다. 지역통화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면 이 모든 돈을 지역통화로 만들어 내어 사용할 수 있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화통화의 경우에도 단위거래등록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중앙 사무국에서 문화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과 특히 현금 환전을 위한 예치금은 현금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문화통화의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진흥, 문화 복지 및 시민의 참여적 문화 향수권 신장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등 부가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민의 세금을 사업의 혜택을 통해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원칙에 따라 재단 예산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문화재단은 자체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예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집행방식을 지역통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을 들이지 않고 복합적인 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관련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단 사업 예산 중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의 집행 방식을 지역통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통화의 도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의 성립을 위해서는 품목의 제공자와 소비자가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반 민간, 반 공공의 위치를 이용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통화의 거래 확대를 주도하여야 한다.

문화재단은 우선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적 위치를 활용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인식 전환 및 참여 그리고 행정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 거래 품목이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공공 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기관들은 문화 소외층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문화 복지 또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 거래 주체들의 거래는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고 전체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정부가 지역통화를 적극 지원하는 사례들을 지자체 행정당국을 설득하는데 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문화 거래 품목 제공자인 전문 문화예술인들은 문화통화 거래를 통해 활동 기회의 확대,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 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참여 유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가들은 작은 경제적 혜택보다는 예술가적 명예와 자부심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참여적 성격이 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문화통화를 통한 예술적 서비스의 거래가 자신들의 예술적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과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실

제로 그들의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제도가 현재 그렇지 않아도 만연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의 초대권 문화와 같은 공짜 관람 심리를 부추길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문화 참여 유도도 재단의 몫이다.

지역통화가 먼저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통화 거래 건에 대한 조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그것이 지역통화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호주에서는 1995년에 연방의회에서 지역통화 거래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단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공공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문화통화가 일반인들의 신뢰를 얻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정보가 누출되거나, 문화통화의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 영리 사업에 이용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미리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거래와 관련한 사고의 처리이다. 즉, 거래된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불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중재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역통화 거래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스템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완전히 방기할 수 없으므로, 회원 약정을 통해 적절한 중재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기타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문화재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문화통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V. 지역에서 문화통화 운영과 활용방안

1. 지역 문화통화 운영

(1) 지역 문화통화의 적용원리

(가) 지역통화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반적인 필요와 요구

기초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출발은 지역통화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제기되는 욕구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문화통화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문화통화의 활용 가능성은 현실성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보편적인 욕구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욕구일 것이다. 이들은 창작의 욕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발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장르에서 혹은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영역을 넘나들며 문화예술교류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능력을 무한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창작 공간과 발표 공간을 가진다. 결국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고 시장의 현실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야기되고, 문화예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왜곡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와 관련된 대관 비용 문제, 창작 활동에 따른 비용 문제, 작품 발표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제반 비용이 따른

다. 결국 능력과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 여건의 결여로 문화예술 창작이나 발표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지역통화와 문화통화의 연계

지역통화는 특정지역에서 한정되어 운영된다. 지역통화에 동의하는 회원들의 자발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회원들은 상호 신뢰와 자발적 협력을 통해 거래를 형성한다. 그러한 거래는 지역통화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거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다. 거래의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거래 자원만 있으면 거래는 성사된다. 또한 지역통화는 법정화폐인 돈이 없이도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여건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또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비시장의 영역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시장의 영역에서 자원을 취하더라도 비시장적인 거래 방법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돈을 통해 시장에서 자원을 취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원을 취하는 유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통화 역시 한 지역에서 문화통화 사용에 동의하는 이들이 참여한다.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원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서비스, 문화 인프라, 작품, 도구 등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작의 욕구와 능력이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 활동들이 지역통화를 통해 새롭게 조직되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문화통화의 성공 조건은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 자원들이 파악되고, 이러한 문화예술 자원들이 문화통화 거래망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지역통화의 일반적인 적용원리를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서 문화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역에서 문화통화 활용방안

(가) 지역축제에서 문화통화 활용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진행하는 대표적인 문화마당이 지역축제다. 따라서 지역통화를 활용하여 지역의 축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문화통화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만큼의 축제 자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그림 5-1> 참조)

지역축제에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통화 회원들이 회원들의 문화적 역량을 표현하는 장으로 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시민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축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축제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지역에서 모든 축제 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상당 부분은 지역축제 자원을 동원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역에서 지역의 축제 자원만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어려움이 닥친다. 지역 외부를 통해 축제 자원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문화재단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문화통화 네트워크의 협조를 통해 축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통화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축제 자원만으로 지역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역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구성 요인이 필요하다. 축제를 기획하는 지역문화 기획자들, 축제를 펼칠 장소와 공간,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축제 자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축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있다. 축제 기획자나 진행자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

비하는 과정에서 지역통화 활용계획에 따라 축제를 설계를 하면 된다. 가령 축제 사무국에서 축제 통화를 발급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축제를 위한 한시적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기존의 지역통화를 활용한다. 축제 사무국과 기존의 지역통화 사무국이 서로 협조를 해도 된다. 혹은 문화통화 발행 사무국이 축제 사무국으로 활동을 해도 된다. 축제 사무국은 지역통화 발행을 통해 축제 기획자, 연출자,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스태프를 섭외한다. 그리고 지역통화를 통해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거래 협정을 체결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축제 진행 스텝에 포함된다. 축제 진행에 필요한 대관시설이나 설치비용을 순수 민간 지역자원으로 동원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지원을 받도록 섭외를 하면 된다.

이제 축제의 장을 펼치면 된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축제에 초대될 수도 있고, 스스로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축제 사무국에서 축제 참여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지역통화 회원들을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경우 참여하는 지역통화 회원들에게 플러스 포인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지역통화 회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축제에 사용되는 지역통화를 이용할 경우 축제를 즐기는 입장이므로, 이들은 지역통화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들의 경우 축제 기간 쌓여진 마이너스 포인트는 축제 기간 자원봉사를 통해 플러스 포인트로 해소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평소에 지역통화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를 한 회원들을 위한 별도의 축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도 있다.

축제를 진행하는 기획자나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출발이나 정신은 지역통화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지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자발적 문화 역량이 한껏 발휘되는 과정이다. 하나의 지역축제를 지역통화만으로 완벽하게 조직해서 진행하기까지는 그 이행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지역통화 운영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행 과정에

서 다양한 교섭력을 가지고 축제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지역축제 방식이 지역의 문화 공공성 확대와 시민의 자발적 문화 표현에 필요한 최선의 한 유형이라면 이러한 지향을 통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목표로 지역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재단 등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통화 등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확대 추세에 따라 축제의 다양한 규모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지역통화를 통한 지역축제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나)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서 문화통화 활용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문화정책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의 자체 교육자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제고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림5-1>참조)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통화의 장점은 자원 동원 능력이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서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 영역은 자원만 확보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일반교육 분야는 물론 문화예술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적용 영역은 이런 요구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올바른 교육철학, 방법적 측면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력을 토대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방향에서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시도될 만한 일이다.

이제 그 적용 영역을 살펴보자. 먼저 학교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과 교류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문화적, 예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그러한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학습 결과물을 학교와 지역에서 표현의 마당을 갖도록 하거나 지역축제 자원으로 조직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사로 참여하거나 혹은 학교 축제나 학급 문화예술 발표를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구성원들에게는 협의를 통해 순수하게 지역 통화로만 교육 지원활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통화로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들과 시설,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지역통화를 매개로 문화예술 교육 자원으로 동원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가능할 수 있다. 학교 안과 밖에서 문화예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의 집'에서 어떤 예술 창작 과정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문화의 집 창작과정을 지도하는 강사나 진행보조 자원봉사자들은 지역통화 플러스 포인트를 받으면서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그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지역통화를 지불하거나, 학교에서 대신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쌓인 마이너스 포인트를 다른 방식을 통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작 과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학교나 지역주민 행사 혹은 인근 경로당 등을 찾아서 발표회를 가지고 그 마이너스를 털어낼 수도 있다.

한편 평생교육 맥락에서 지역통화를 활용해서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문화시설이나 평생학습원 등 지역교육 시설에서 시민교육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때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경우다.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나 교육진행자를 지역통화 회원들 중에서 섭외하면 된다. 앞서 예로 든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사료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역통화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교육기관에서 지역통화를 통해 강사료를 지불하고, 수강생들은 수강료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역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교육기관이 이를 매개할 수도 있고, 교육기관과 지역통화 사무국이 상호협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수강생들과 문화예술 교육 강사가 직접 지역통화로 거래하면서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고, 교육기관 등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가능하다. 이 경우 교육은 지역통화 회원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 문화예술 교육 기회에서 제외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역통화 사무국이 지역통화를 기부하여 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수강생들이 지역행사나 소외계층 방문 행사 등을 통해 수업 결과물을 발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통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자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특히나 예술교육 특성상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통화는 이러한 교육에 더욱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아울러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행정 당국은 한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 외부 교육역량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의 문화통화 활용과 활성화

시민문화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마추어리즘에 충실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동호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르를 넘어 서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지역통화다. 지역통화의 역할 중 하나가 교류의 확장이

기 때문이다. 먼저 동일 장르의 예술인 동호회가 회원들의 상호 역량을 보완하면서 서로를 지지한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동호회 회원들이 지역통화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통화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교류한다면 이는 기존의 동호회 활동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동호회 간의 교류를 매개하고, 지역 축제나 교육의 장 그리고 자원 봉사 등의 장에 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면 동호회의 활동력은 더욱 높아지고, 개개인의 역량도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교류를 증대하는 수단이 지역통화이다.

지역통화에 가입한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교류의 과정 그리고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통화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하면서 지역통화 거래에 나서는 방식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들만의 교류센터를 만들어 활동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지역의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나 공연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지역통화를 통해 서로의 자원을 모아내고,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아마추어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의 시민문화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라) 지역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통화 활용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지역통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참여가 현실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리즘과 시민의 자발성 증진 차원에서 지역통화는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 거래품목이 다양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품목의 질이 우수하면 할수록 이는 거래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지역통화 공동체 안에서 거래되는 거래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또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거움에 있어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

이제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통화를 통해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지역에 참여함에 있어 그 참여의 층위는 다양할 수 있다. 이들에게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 수준에 따라, 혹은 이와 반대로 이들이 지역에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참여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떤 수준이든 지역통화가 지역에서 이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매개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전시나 공연의 경우다. 이들이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 내외를 아우르면서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 내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대관이나 설치 과정에서 지역 행정이나 지역 문화시설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행정 당국은 이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자원에 대해서 문화재단 등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기타 지역 민간 자원 부분은 지역통화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들의 참여 개런티도 지역통화를 통해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공연이나 전시의 기획 의도나 성격에 따라 재단 또는 행정당국의 지원을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연이나 전시의 과정은 지역통화 사용을 중심에 두고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지역문화예술 교육, 지역축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그리고 아마추어 동호회나 후진 양성을 위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좀 더 전면적으로 지역통화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지역통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러한 동기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가치로 환산되는 측면이 아니라 문화예술 표현의 욕구를 실현하면서도 그것이 지역성을 근거로

공동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마)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통화 활용

지역통화를 통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문화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이 활용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능력과 잠재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시민 문화의 질을 한 단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활용을 통해 누구나가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의 기회를 누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지역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어떻게 접근되는가가 중요하다. 먼저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축제의 장에 참여하는 경우다. 일반 시민들이 지역통화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들은 먼저 이러한 공연이나 전시 등에 일차적 초청 대상으로 참여하는 혜택을 누린다. 지역통화를 이용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 역시 제공된다. 지역통화를 통해 문화시설 이용이나 공연 등에 접근할 기회가 제공된다. 배우고자 하면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관람을 통해 즐기고자 하면 공연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아마추어 동호회의 활동을 통해, 또는 문화자원봉사자로서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시민 스스로가 지역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수혜의 대상이 되면 마이너스 포인트를 통해 참여를 하게 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참여를 하게 되면 플러스 포인트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또 지역통화 운영 정책에 따라 회원들은 관람이나 참여를 통해 사실상 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경우라고 해도 플러스 포인트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원들은 공연의 초대자들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들과의 교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통화 거래를 통하면 혹은 지역통화 안에서 다른 형태의 활동을 활용하면 더욱

많은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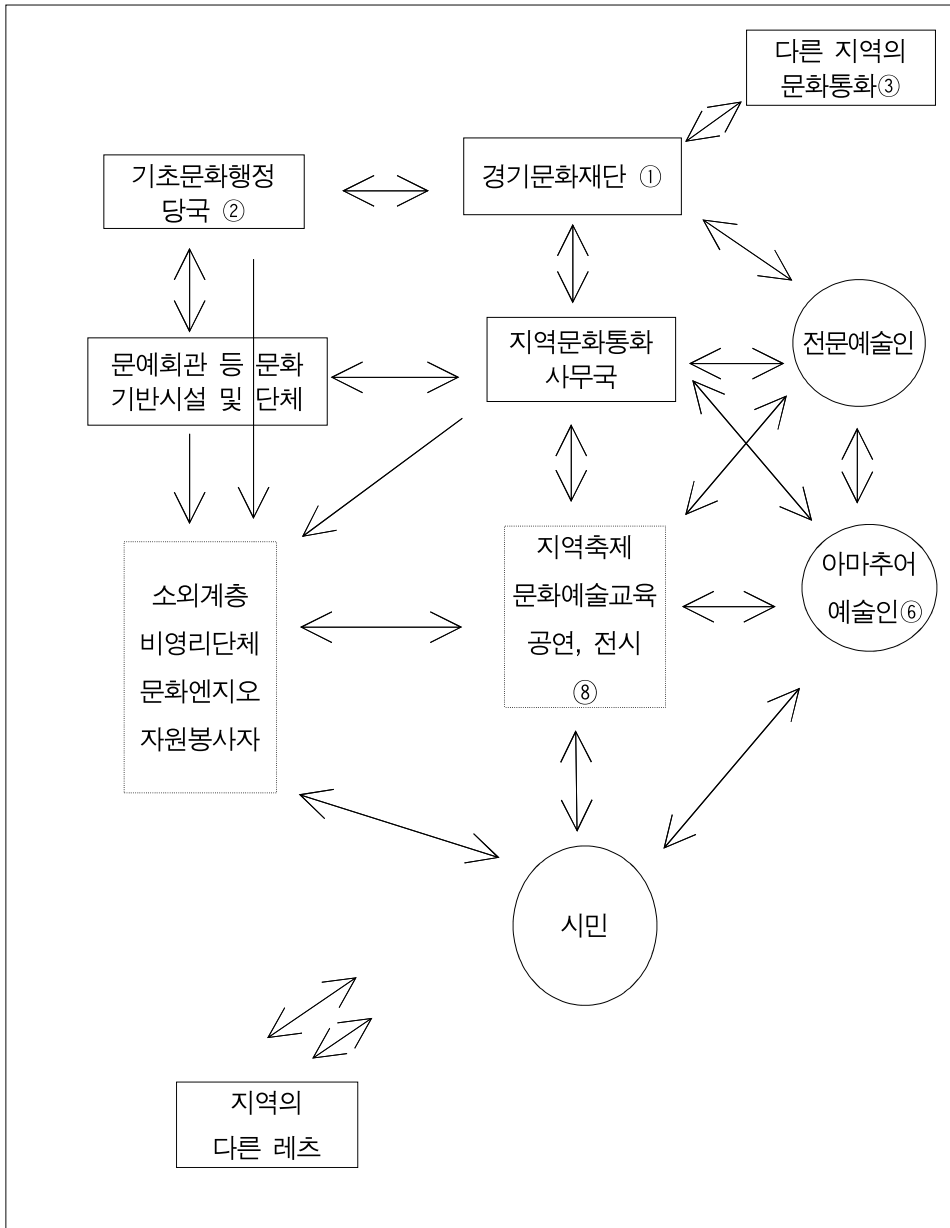
문화복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통상 문화예술교육이나 공연, 전시 등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비용의 수반은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참여를 한다고 해도 소극적 참여 수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다. 즉 공연을 관람한다 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지역통화의 활용은 직접적인 교류를 형성한다. 또 지역통화 플러스 포인트를 통해 소외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공연이나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될 수도 있다. 문화시설이나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도 지역통화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2. 지역 문화자원 네트워크와 지역통화 적용

(1) 지역 문화자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전제

지역통화는 시민의 자발성을 근거로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함으로써 순환하도록 하는 체제다. 문화통화 역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동원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화통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통화 시스템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려면 지역통화 운동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행정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 담당자나 관련 시설 담당자들이 지역통화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통화 운영 방안에 대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운영 체제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문화통화 시스템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

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8> <특정기초지역 문화통화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2) 지역문화행정 당국의 문화통화 지원과 참여

문화통화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서 지역문화행정 당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역문화 행정 당국이 문화통화 시스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 즉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 공공성 확대 그리고 문화자원의 재조직화와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지역통화가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시민의 자발적 문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 지역통화가 지역문화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유의미한 도구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지역통화 활용에 접근을 할 필요성에 공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합의를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문화행정의 영역에서 지역통화를 주제로 한 자체 문화행정의 입장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의 노력도 요청된다.

문화행정 담당자들의 자체 노력을 전제로 하고 왜 문화행정의 지원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문화행정 차원에서 예술인들이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공연 등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함에 있어 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 요인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장소대관, 설치지원, 홍보비용 등이 필요하다. 창작활동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방 등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역시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화를 통해 작품이 창작되고 공연이나 전시가 된 작품들에 대해 문화행정 기관은 지역통화를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쌓여진 지역통화에 대해 행정당국은 지역통화를 소외계층이나 지역 비영리 기관, 단체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 또 문화자원봉사자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지역통화를 통해 행정당국이 거래한 지역통화의 부분에 대해 행정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배정하고 투입

하는 개념이다. 지역통화를 통해 공연이나 전시가 진행되고, 창작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이고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역통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 공공성 확대, 그리고 문화복지 확대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지역통화를 통해 공공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공연 등을 진행하는 문화예술인들 역시 이에 따른 수혜 부분은 지역통화 지불을 통해 마이너스 포인트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편 관객의 참여가 일정부분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공연 관람을 지역통화를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문화적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역통화를 기부받고 참여할 수도 있고,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주최 측의 초대를 통해 관람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유료공연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료 관람료의 일부는 지역통화로 지불할 수 있고, 그 비율은 협약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

(3) 지역문화 기반시설 네트워크와 문화통화

지역문화 기반시설들에는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관) 등이 있다. 민간 기반시설들로는 지역 소극장, 지역극장, 창작공방, 미술관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기반 시설 운영자들에게 지역통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역통화를 시설 운영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문화 시설 운영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 문화행정 차원의 정책 채택과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역 외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각 문화시설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들 시설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역시 지역통화 활용의 주요한 대상이다. 각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자체 통화를 개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들끼리 지역통화를 연계해서 호환(교류)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도 있다. 협력체계를 통해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

문화행정 당국과의 협력이나 문화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제공을 통해 축적이 된 부분에 대해 비영리단체나 자체 문화자원봉사자, 혹은 지역 문화소외계층에 기부할 수 있다.

(4)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와 문화통화

문화예술단체들로는 문화원과 각 장르별 단체들이 있다. 예총과 민예총 등 예술인들의 협의체 조직이 존재하기도 한다. 미술, 사진, 문학, 음악 등 각 장르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NGO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인 동호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이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통화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지역통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문화예술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창작활동이나 무대 작품, 전시 작품을 구성하고 기획함에 있어 서로의 자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들의 능력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동원될 수도 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기량이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인적 자원은 상호 기량 확대를 위해 제공되고 교류될 수 있다. 지역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에 지역통화가 유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지역통화는 일차적인 조건을 확보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지역통화를 이해하고, 참여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

은 지역통화 운동에 필요하다.

(5) 문화통화와 다른 지역통화와의 교류체계로서의 네트워크

문화통화는 지역통화의 한 부문이다. 지역통화는 지역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그에 기반해서 교류체계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통화는 그 시스템 내에서 여러 주제를 매개로 다양한 지역통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역통화 그룹의 설립이 가능하다.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 혹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통화 역시 이러한 지역통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문화통화 안에 또 다른 형태의 통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지역통화는 열린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그 시스템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이들의 통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지역을 전제로 하고, 가능한 지역의 자원을 시민들이 최대한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통화 네트워크이다. 특정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통화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통화 회원들만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를 넓게 할 수 있고, 문화자원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류의 방식은 상호협력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찾아나가면 된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통화 사례는 아직 시행초기이지만 참고를 할 만한 사례라고 본다. 광명시의 경우는 지역의 시민사회 기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23개 단체(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03년부터 '지역통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통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관련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의회는 2004년 3월 본격적으로 지역통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단계에서는 하나의 지역통화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고 지역통화 활용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규모의 지역통화 조직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시 안에서 문화통화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통화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확보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부터 형성된 지역통화 네트워크는 문화통화와 다른 유형의 지역통화가 거래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지역에서의 교류방식을 넘어 다른 지역의 문화통화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정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외부자원의 유입이 필요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욕구에 따른 교류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문화통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매개함에 있어 문화재단의 역할이 요구된다.

3.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정책지원 필요성과 연계방안

(1) 문화재단의 지원 필요성

지역통화는 일차적으로 지역을 관심대상으로 한다. 지역에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거래대상으로 삼아 교류한다. 지역은 지역통화의 가능성이고 전제인 동시에 한계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통화의 특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부분 외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부족한 부분이 유입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

할 수 있다. 문화재단은 문화진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다. 지역문화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통화를 모색하는 것 역시 이러한 문화재단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

먼저 지역통화가 문화재단의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지역통화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을 통해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복지의 확대와 시민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지역통화를 통해 이러한 역할이 수행된다면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문화재단의 기여 범위는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문화재단은 지역통화가 지역에서 순기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통화가 지역에서 운영이 되는 원리와 체계를 파악하고, 그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통화가 다양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문화통화에 대한 문화재단의 지원 영역

(가)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먼저 비용의 지원이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교육 그리고 축제 진행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확보하고 동원함으로써 지역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정 부분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역통화 부문에서 모든 것이 동원이 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부의 지원이 따라 주어야 한다. 이 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지역의 지역통화 거래 네트워크를 조직

함으로써 지역 간 거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비용의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은 기금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문화통화를 활용해 지역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통화를 통해 지역에서 문화예술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역 문화행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비용지원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운영되면 될 것이다.

(나) 지역 문화행정 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문화재단의 지원

지역문화행정 당국이나 문화재단은 문화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정책적 선택과 판단, 그리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문화공공성과 복지 측면에서 적정 비용을 투입하기도 하고, 비용대비 효과성을 근거로 최소의 비용 징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가 지역문화를 진흥함에 있어 유효한 수단임이 인정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통화를 이용한 공연, 전시, 축제, 교육 등에 시설 대관 및 설치 지원 등 제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입이 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분담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문화기반 시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간 문화기반 시설의 교류에 있어, 지역통화가 적용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지역문화 행정 당국과 문화재단은 기존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역통화가 적절하게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면서 그 결과로 문화복지가 확대되고,

시민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기존의 지원방식은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가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투입을 최적화하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지역 주요 기관의 섭외 과정에서 지역행정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화재단과 지역행정 당국의 협력체계는 대내외적 신뢰와 지역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조성한다. 이는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 내의 협력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 유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역량을 공연 등을 통해 지역 외부에서 표출할 경우에 공간 확보 등 대외 교섭력이 높아 질 수 있다.

(다) 전문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재단의 지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문화예술인들은 숫자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폭 넓은 교류를 원할 수 있다. 또한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 전시, 축제 그리고 교육을 지역에서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외부와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문화재단이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시장을 통해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통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간 지역통화 교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통화 네트워크가 전국적인 교류망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지역통화 네트워크는 결국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유력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지역 문화복지 정책의 의미와 지역통화 활용

(1) 지역 문화복지 전개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통화

앞선 언급했듯이 지역복지 확대는 지역 문화정책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다. 이러한 지역문화복지의 내용들은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기반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지역에 고루 문화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문화적 자원을 고루 분산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또한 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생활권에서 문화기반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민의 문화복지 참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언급될 수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되든 문화복지 정책은 한정된 문화예산을 통해 소외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 배정을 통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전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문화복지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 문화사회의 저변을 넓혀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정책적 우선순위를 통해 문화복지 정책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자발성을 토대로 문화소외계층이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통화는 문화소외계층이 시민사회에 문화를 매개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통화의 활용

문화소외층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아니면 거동의 불편함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문화적 illiteracy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통화는 이러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가가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가 발생되고 활용이 되는 과정 역시 소외계층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범정화폐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혹은 그 부족 때문에 시장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이 지역통화를 통해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지역통화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통화 역시 문화통화의 필요성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자 하나 기회가 없는 경우,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을 하고자 하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이 문화통화를 통해 그 필요를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지역통화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문화통화를 제공받음으로써 문화적 필요를 채우면 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역통화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을 해주는 일이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들에 대한 지역통화 기부이다. 지역문화 행정 당국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 운영자들이 문화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통화를 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 지역통화를 활용한 공연이나 전시 등에 대관을 함으로써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지역통화를 받고, 이렇게 확보된 지역통화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공연 주최자들은 지역통화를 통해 공연을 진행할 수 있고, 문화소외층은 지역통화를 기부 받아 공연이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화소외층에 대한 몫을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외

에도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직접 소외층을 찾아 나서는 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추어 동호회들은 지역통화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통화를 자신들의 공연이나 자기계발 과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교류 과정을 통해 소외계층에 다가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가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합적인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맺어지면서 형성되는 관계야말로 문화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접근 모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5. 지역통화추진사례를 통해 본 지역통화체계구성 및 문화재단 연계방안 - 광명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1) 광명시지역통화 추진경과

광명시에서 지역통화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3년도 상반기다. 광명시는 '98년도에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광명시평생학습원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고,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2년에 성공회대학교에 운영위탁을 맡겼다. 이에 광명시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교육통화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고, 이 사업이 지역통화로 확대되어 제안되었다. 또 하나의 파트너십 단체로 푸른광명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광명의제21)가 참여했다. 광명의제21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이 두 기관이 공동의 제안 형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역통화 사업'을 제안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한 제안의 성격이나 의미를 한 마디로 추상화해서 설명을 한다면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다.(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의제21, 2003) 추상적인 개념

이지만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는 광명시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써 지역통화가 의미가 있겠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제안한 것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교육통화와 지역통화를 주제로 시민사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밟았고, 참여단체와 기관의 조직화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 중에 2003년 5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 지역통화 워크숍’에서 지역통화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국내외 지역통화의 추진 현황과 지역통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지 연수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같은 해 6월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일본지역 지역통화 연수를 진행하여,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통화 현장을 체험하도록 했다. 이어 연수팀은 일본지역 연수 결과를 지역사회와 이에 관심있는 지역 외 인사들을 초청해서 보고대회를 가졌고, 본격적 실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정적인 협의체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던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서 참여단체 중심으로 가칭 광명지역통화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광명시평생학습축제 기간에 축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명나눔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축제 모의통화를 발행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본격적인 시민 여론 조성과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축제 기간에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와 ‘지역통화’라는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확인과 지역통화 적용 모델 탐색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역 홍보작업과 공론화 작업, 그리고 내부 조직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내 송과 품앗이 담당자를 통해 추진 사례와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 작업을 가지기도 했다.

지역에서 공론화하고, 참여단체들이 지역통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은 여러 차원의 프로그램 진행과 접근을 통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무의 착수였다. 국내외 사

례를 탐색한 결과, 어떤 개별 단체가 자신의 독자적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역통화 운영 실무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전담 실무자가 있지 않으면 본격적인 지역통화 실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 어떤 지역통화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 논의와 함께 지역통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이에 따른 실무 사무국을 구성하는 논의가 2004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드디어 2004년 3월 16일 지역통화협의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공식적인 체계 마련과 사무국 구성을 마치게 된다. 또한 총회를 통해 광명시지역통화협의회 명칭을 '지역품앗이 광명그루'로 정하고, 통화의 형태는 '통장' 방식으로 정했다. 통장의 명칭은 '광명더불어숲통장'이라고 정하고, 통화의 단위는 '그루'로 정하였다. 지역통화에 참여하는 이들을 숲과 같은 공동체로 보았으며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 즉,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루로서 상징화 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담당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으로 지역통화 진행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통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역품앗이 광명그루, 2004)

2003년도와 2004년도를 거치면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평생학습원, 복지관 등 22개 단체와 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광명지역 지역통화 특징은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제 기관,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 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공론화의 작업을 충실하게 밟아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당국에서도 광명시평생학습원 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지역통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통화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지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지역통화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점과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2) 광명시 지역통화의 가능성

우선 추진주체나 진행형식이 네트워크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국내에서 지역통화 추진과 그 성공의 사례에서 또 다른 시사점을 가진다. 이에 광명에서의 지역통화 실험은 국내 지역통화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자 실험이라는 의의를 안고 있다. 따라서 광명에서 실시하는 지역통화는 준비과정부터 함께 참여한 네트워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진행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련된 지역통화 사무국은 가입한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통화 거래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통화 네트워크의 참여단체들이 지역통화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안에서 지역통화 사업이 기관이나 단체 회원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고, 지역통화 거래에 나서기까지는 시행초기인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역통화 홍보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되는만큼 지역통화 가입과 거래 활성화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한편 광명 지역통화 사무국과 운영위 등 협의 구조를 통해 지역에서 지역통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로 오는 6월 5일 진행될 환경의 날 행사에 환경 관련 베품시장을 열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역통화 장터를 열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통화 참여단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통화를 만들어 직접 집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을 모의지역통화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통화 가입 단체들이 회원들이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광명교회협의회(NCC) 소속 교회들은 개별 교회단위로 교인들에게 홍보를 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경의 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광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화 거래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일 지역통화

경험을 근거로 지역통화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현장에서 지역통화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공식적인 행사에 지역통화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그동안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한 준비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명 청소년문화의 집도 도입기이지만 눈여겨 볼 지점이 있다. 이 기관은 ‘호접란’이라고 하는 별도의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이용을 하는 지역통화로 아직은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5월말에 진행된 광명 청소년축제 기간에 ‘축제 통화’ 형식으로 이 통화를 홍보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다. 또한 광명 청소년문화의 집 역시 광명지역통화 추진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이후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통화의 가능성과 연계해서 지역통화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한 상태다. 호접란 통화 역시 도입기이기에 그 평가가 이르지만 청소년이라는 집단의 특성과 지역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하는 특성을 동시에 안고 있어, 그 실시 범위와 과정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통화를 알리고 실행을 준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지역의 초등학교가 어린이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통화를 교육하고, 학교 안에서 지역통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협력을 하고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학교 어린이 지역통화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방과 후 대안학교인 구름산 자연학교 역시 지역통화에 적극적이다. 이 학교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역통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광명지역통화협의회는 어린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통화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역시 향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지역통화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역통화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명시의 또 다른 강점이 있다. 그것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평생교육 선진 지자체라는 특성과 그 추진 기관으로서 광명시평생학습원이 지역통화, 특히 교육통화에 대한 사업을 대단히 의욕적이며 전략적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통화를 확산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역통화 이용에 노출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 시민들의 특성에 따라 교육통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기관의 다양한 전략사업의 영역에 교육통화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그 결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광명의 지역통화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체 지역통화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하면서도 자체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어린이, 학교, 청소년 기관, 그리고 평생학습원 등 공공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고, 일부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상을 그 자체로 옮겨 놓자면 어린이 통화, 청소년통화, 교육통화 형태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가능성 역시 열려져 있다. 지역의 문화원과 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역통화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어, 지역통화 영역을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해서 제안하고 구체화하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상황이다. 아직은 문화통화 논의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제안되거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려진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난 2003년에 열린 광명시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축제통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통화의 한 형태를 경험한 바 있어, 문화통화의 실시계획을 잡기에 보다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광명지역은 향후 지역통화 네트워크가 어떻게 긴밀하게 유지되는가에 따라,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로서의 지역통화 가능성에 대해 각 단체

와 기관 및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보이는가에 따라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3) 광명시 문화통화 적용가능성

앞서 언급했듯이 광명시 지역통화 추진사례의 특징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일정부분 지역통화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광명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통화의 사례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화의 전면적 도입유형으로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보인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토대로 지역에서 문화통화를 도입할 가능성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보인다.

먼저 문화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역통화에 대한 기본 이해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통화 실시를 합의하기 위한 사전 논의과정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문화통화 실시에 동기부여와 자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문화통화의 지역 적용 모델을 탐색함에 있어 기존의 네트워크와 협력구조들이 존재하기에 문화통화 모델 구축과 실행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통화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내 다른 통화들과의 교류 및 교환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다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통화의 독자모델 도입과 함께 지역 인터레츠(INTERLETS) 시스템을 통해 문화통화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통화 도입은 지역통화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의 지역통화 참여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광명지역에서 축제통화를 사용해보고, 청소년 문화관련 시설에서 관련 통화 도입

을 시도하는 등의 앞선 경험과 노력들이 문화통화의 본격적인 도입 필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광명에서 지역통화 추진의 과정들은 문화통화 실시의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문화통화의 제안 그룹이나 아니면 광명시 지역통화 기존 그룹들이 이러한 문화통화와 필요성을 제안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통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지역통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터넷의 기능뿐만 아니라 광명지역에 다양한 지역통화 도입을 위한 논의와 준비를 확대해가려는 노력 역시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광명시문화통화 모델과 경기문화재단의 연계 지원방안

(가) 경기문화재단 문화통화 지원센터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명은 지역통화를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이고, 문화통화 모델을 지역에서 도입하기에 유리한 몇 가지의 장점들이 있음을 언급했다. 경기문화재단이 기초지역의 문화활성화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문화예술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문화통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망과 계획 속에서 특정지역의 모델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광명지역의 지역통화 추진 과정에 대한 사례와 문화통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경기문화재단과 광명지역의 문화통화 도입의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문화통화 지원센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에 문화통화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문화통화 지원센터는 기초지역에서 문화통화를 활성화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31개 시군의 문화통화 도입을 제안하고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지역의 문화통화들이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시군에서 진행이 될 문화통화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문화통화를 통해 확보된 각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에 대해 DB화함으로서 유기적인 문화통화 교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 문화통화가 정책적으로 경기도 문화교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인 경기도 문화통화의 전망을 모색할 수도 있다. 문화통화의 다양한 모델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입하도록 연구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경기도 전체의 문화통화 모델 체계를 구상하는 역할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광명지역 문화통화 도입에 따른 지원자로서의 역할

문화통화 지원센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기초지역 문화통화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 모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지역에서 문화통화를 도입함에 있어 먼저 문화예술 자원의 파악과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문화통화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체가 필요하고,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들은 문화기반시설 운영자들, 문화예술 기획 및 조직자들, 전문문화예술인들,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 문화교육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이 문화통화 자원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앞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지역통화가 이러한 가능성에 있어 일정부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가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통화를 통한 거래와 교류 관계를 통해 이들이 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위해서는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문화통화를 보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끊임없는 창작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다. 일반 시민들은 이들의 창작 욕구들의 결과물들을 공연이나 전시회 형태로 접하게 된다. 또한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문화통화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문화통화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그들의 모든 욕구를 답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보다 높은 욕구들에 대해서 외부지원이 필요하고, 경기문화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 또한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광명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통화로 공연을 준비할 경우,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보다 질 높은 지원 사항들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문화통화 지원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광명 문화통화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이 지역에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을 통해 확보한 플러스 문화통화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문화자원에 대해 대가로 지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적 지원 서비스 혹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은 이렇게 확보한 플러스 문화통화를 지역의 문화통화 사무국이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수 있고, 아니면 경기재단 문화통화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한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축제나 문화예술교육, 전시회 등으로 영역이 확장이 될 수 있다.

(다) 광명지역 문화통화 도입에 따른 '보증자'로서의 역할

기초지역에서 문화통화를 도입함에 있어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가 문화기반 시설들의 참여다. 공공문화기반 시설이나 지역 소극장 등 민간 문화시설들이 문화통화로 조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 혹은 민간 문화 기반 시설의 참여에 있어 수익의 문제는 문화통화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기반시설들이 문화통화 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기반시설들이 문화통화에 가맹을 하고 문화통화 회원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의 대관에 있어 문화통화로 받고 대관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기획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문화통화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지원센터가 관련 문화시설들에게 문화통화를 받고, 대응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경쟁력이나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혹은 지원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에서 확보된 문화통화는 앞서와 같이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문화통화에 가입한 문화관련 시설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경기문화재단 문화통화'라고 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통화에 가입한 문화관련 시설들이 이 브랜드를 이용해 공신력과 공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문화통화 문화관련 시설들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매개할 수도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지역통화 시스템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 전략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았다. 지역통화가 한국에 소개되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지 8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낯선 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 통화 방식의 활용을 탐색해 보려는 작업은 매우 진보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통화의 일반적 원리와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서, 지역통화가 지역 주민의 자치 능력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상호부조정신을 지켜 가는 데 매우 귀중한 이념적 건강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 예술, 교육, 건강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편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뒤따랐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 예술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고양이라는 재단의 지향점이 결국 지역통화의 근원적인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화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 지역통화 시스템과의 창조적 결합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다.

문화재단과 지역통화 체제와의 결합은 문화예술 거래를 촉진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키워낼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자율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덧붙여 지역 내 문화적 자원의 공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문화재단의 위상을 지역통화 방식을 통해 공고히 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 민주주의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게 되며, 마침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와 같은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31개 시를 대상으로 문화통화 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지원 센터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각 시에서는 지역통화 사업이 그다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광명시를 비롯한 지역통화 체제가 구축된 시들을 사업 파트너로 하여 가능한 단계와 수준에서부터 문화통화를 정착시켜나갈 방안을 수립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통화 실시 지역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실사와 함께 참여 회원들의 의식조사, 거래 성향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감수성, 거래 대상으로서의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문화통화 체제 구축에 활용한 근거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코진, 박유하 대담, NAM과 지역통화운동, <녹색평론> 2002년 7-8월 (2002).
- 강내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문화연대 및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3)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백서.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3).
- 광명시평생학습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지역통화, 광명시평생학습축제 한일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광명: 광명시평생학습원, (2003).
- 광명시평생학습원 일본 지역통화 연수 보고서, 광명: 광명시평생학습원, (2003).
-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의제21실천협의회, 2003년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교육통화워크숍 자료집, 광명: 광명시평생학습원, (2003).
- 권인천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영중 외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특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9권 제4호, 서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7).
- 김인철 녹색 경제시스템, 광주지역화폐 “나누리”, <풀 한 포기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2002년 1월, (2002).
- 김중해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형용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형용.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노르베리-호지, 헬레 방향의 전환-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 <녹색평론> 1999년 7-8월, (1999).
- 니시베 마코토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2년 7-8월, (2002).
- 로빈스, 존 테러, 사랑, 세계의 상황, <녹색평론> 2001년 11-12월, (2001).
- 리에테르, 베르나르 공동체 화폐, <녹색평론> 2002년 7-8월, (2002).
- 린튼, 마이클 돈 없는 녹색 삶을 위한 준비(레츠 관련 질문과 대답), <지금 여기> 1998년 1-2월, (1998).
- 문화관광부 “2004년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www.mct.go.kr), (2004).
- 미즈, 마리아/ 벤홀트-툼센, 베로니카 힐러리에게 암소들: 세계화 경계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녹색평론> 2001년 3-4월, (2001).
- 박용남 한발 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녹색평론> 2001년 9-10월, (2001).
- 베리, 웬델 공동체의 보존과 지역경제, <녹색평론> 1996년 9-10월, (1996).
- 베리, 웬델 지역경제의 이념, <녹색평론> 2001년 11-12월, (2001).
- 변홍철, 의료 생협-건강을 위한 협동과 자치, <녹색평론> 2001년 11-12월, (2001).
- 세이팡, 길/ 윌리엄스, 콜린 레츠-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1998년 5-6, (1998).
- 쓰치다 아쓰시 순환의 경제학, 서울: 삼신각, (2002).
- 아베 요시히로 & 이즈미 루이, 전정근 옮김. 지역통화 입문, 서울: 아르케, (2003).
- 이가옥 · 고철기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대구: 녹색평론사, (2001).
- 이동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문화연대 정책자료 집, (2004).

- 이원규 미래화폐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여기> 1998년 1-2월, (1998).
- 임희섭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제5권 제1호. 서울:한국행정학회, (1996).
- 정구현 외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 성장 · 복지 · 환경의 조화」.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 정성기 새로운 제3의 길, <녹색평론> 1999년 7-8월, (1999).
- 지역품앗이 광명그루 창립총회자료집, 광명: 광명그루, (2004).
- 최준호 ‘삶의 질’, 지자체간 격차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2월호, (2000).
- 하혜수 도시 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1996).
- 한상연 · 신영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문화의 재발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논문, (2000).
- 허철행 · 김도엽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4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2000).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대구: 녹색평론사, (2000).
- 후루사와 고유 공생과 협동의 사회경제, <녹색평론> 1996년 3-4월, (1996).
- 후쿠이 테쓰야 공예 및 생활기술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2년 7-8월, (2002).
- Caldwell, C. (2000) "Why do people join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4.
- Croall, Jonathan (1997) LETS ACT LOCALLY: The Growth of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박용남 옴김 (2003)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서울: 이후.
- Jacson, M. (1997) "The Problem of Over-Accumulation: Examining and Theorising the Structure Form of 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1.

Lee, R. (1996) "Moral Money? LETS and social construction of local economic geographies in South East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Vol.28

Liesch and Birch.(2000), "Community based LETS System in Australia : Localised Barter in Sophisticated Western Economy" .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4.

Liton, M. & Soutar, A. The LETS System Design Manual.
<http://www.gmlets.u-net.com>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 - 01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발행일 2005년 12월 31일

발행인 송태호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1-7200 fax: 031-236-0283

www.ggcf.or.kr

인쇄 디자인하우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